

복지요결 낙수

2026년 3월 9일

최신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파일로 공유합니다. anarchist@dewelfare.net 010-3080-8197

머리말	3	사회사업가	111
사람과 사회	12	복지관 사회사업	121
사회사업 개념	22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159
사회사업 가치	40	시설 사회사업	174
사회사업 이상	45	사례관리 사회사업	201
사회사업 철학	52	사회사업 조사	210
사회사업 주안점	56	사회사업 기획	217
사회사업 방법	85	사회사업 기록	222
맺음말	97	사회사업 평가	224

머리말

1. 요결과 낙수

1) 요결

복지요결의 ‘요결’은 율곡 선생이 초학자들을 위해 학문의 원리와 방법을 밝힌 책 ‘격몽요결’에서 따왔습니다.

사전에서 요결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긴요한 뜻’,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또는 그것을 쓴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의 핵심 원리와 방법 또는 그것을 밝힌 책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의 핵심 원리와 방법은 사회사업의 요결이라고 해야 적확합니다. 일반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서명으로는 복지요결이라고 해도 괜찮을 성싶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복지소학, 복지야성, 복지영성, 복지논어, 복지인권, 복지영문도 서명은 복지로 썼지만 내용은 사회사업 이야기입니다.

2) 낙수

낙수는 ‘추수 후에 떨어져 있는 이삭’입니다.

복지요결 낙수는 요결을 거둔 후에 떨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이삭 줍듯 모아서 편집한 글입니다.

요결에 이르는 과정의 생각도 있고, 행간이나 이면의 생각도 있고, 요결에서 이어지는 생각도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거나 토론해 볼 만한 이야기도 있고, 논리나 문장을 더 다듬어야 할 이야기도 있고, 요결에 넣을 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보편성이 부족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 바르게 잘하고 싶다면

1)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탐구할 것이고, 어떻게 되어야 바르게 했다 잘했다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뚜렷이 세울 겁니다.

길을 모르면,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 바르게 잘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어찌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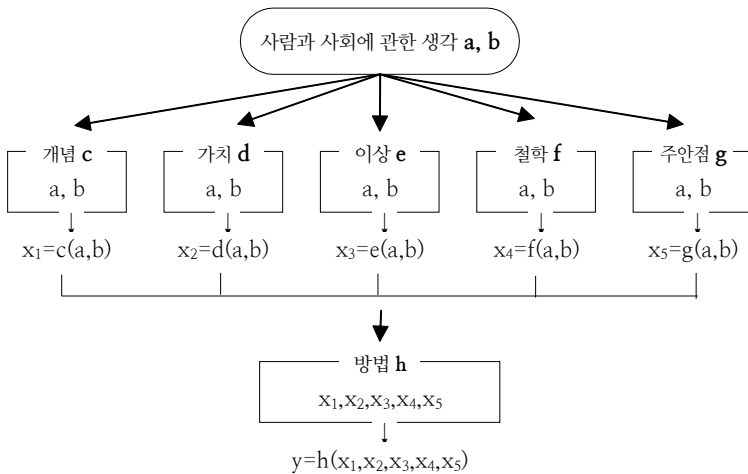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어떻게 되어야 바르게 했다 잘했다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할 겁니다.

근본이 없으면, 길과 기준이 그러해야 하는 까닭을 모르면, 그런 길과 기준을 좇아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조 : 사회사업 평가 편, '바르게 하다'와 '잘하다'의 개념과 기준

3. 연구 순서

- 1)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힙니다. 그 생각을 a, b라고 합니다.
- 2)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이라는 상자(a·b 값을 처리할 규칙, 계산식, 함수)를 설정합니다. 그 상자를 c, d, e, f, g, h라고 합니다.
- 3)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 a, b를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이라는 상자 c, d, e, f, g에 입력하여,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의 내용인 x_1, x_2, x_3, x_4, x_5 값을 출력합니다.
- 4) x_1, x_2, x_3, x_4, x_5 값을 방법이라는 상자 h에 입력하여, 방법의 내용인 y 값을 출력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좌우하는 변수는 신학이나 철학 따위의 다른 학문 또는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 다룰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근본

1) 근본과 말단

사회사업 이야기도 그 주제마다 각각 근본과 말단이 있고 그 연구에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가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의 근본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이고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의 근본은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러므로 방법을 밝히려면 먼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야 하고,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히려면 먼저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힌 후에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힐 수 있고,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힌 후에 방법을 밝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과 말단은 상대적입니다.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은 사회사업 방법의 근본이면서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의 말단입니다.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복지요결 전체가 근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본말선후'

2) 전공과 근본

근본을 몰라도 취업할 수 있고, 이렇다 할 근본이 없어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고, 근본이 무슨 상관이며 무슨 소용인가 싶을지라도... 그래도 근본을 알고 근본을 좇아 행함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사회사업의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도 없이 행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5. 열쇠 말

다른 요소는 없는가?

농사에서 햇빛 물 공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예컨대 예산 시설 조직을 그런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간접 자본’쯤 되는 요소입니다.

열쇠 말로 취할 만큼의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땅과 씨앗, 사람과 사회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2) 이런 요소들로써는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무를 정합성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요소들까지 더하여 정합성 있게 이야기하려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열쇠 말이 세 가지만 되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복잡하면 이해 기억 적용하기 어려워서 결국 실용성이 떨어지겠지요.

6. 용어

1) 용어의 정합성

이름이나 개념에 본디 그러한 건 없습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흔히 쓰는 이름이나 개념이 그림직하면 그것을 취합니다. 다만 가리키는 대상의 핵심 속성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는 이름, 이름과 어울리지 않거나 뜻이 모호한 개념, 개념과 다른 용례, 이렇게 대상과 이름과 개념과 용례가 따로 노는 용어...

그런 게 사회사업 핵심 용어라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2) 전공과 용어

용어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나 실무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개념과 실무가 따로 논다고 무슨 대수인가 싶을지라도...

그래도 자기 분야의 핵심 용어만큼은 개념을 똑떨어지게 정의하고, 일관되게 그 개념으로 사용하고, 그 개념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사회사업 핵심 용어조차 이렇게 할 수 없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망한 일입니다.

7. 주관성

1) 사회사업 방법을 좌우하는 변수를 무엇으로 보며 그 변수를 좌우하는 변수는 또 무엇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 무엇을 사회사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연구의 열쇠 말로 삼을 것인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모습이 어떠한다고 할 것인지... 모두 주관에 달렸다고 봅니다.

복되다,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그럼직하다, 평범하다, 자연스럽다, 정의롭다, 인간적이다 하는 판단도 주관에 달렸습니다. 보통·흔히·대개·일반적으로 어떠한가거나 어떠한다는 이야기도 주관에 가깝습니다.

2) 사회사업을 다 볼 수 없고 그 본질이나 실상을 그대로 그려 낼 수도 없습니다. 주관에 따라 선택 해석 설명할 뿐입니다.

이러므로 주관을 충실히 담아내되

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럼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직하겠다는 판단 또한 주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얼마쯤 객관화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뜻있게 행하려는 사회사업가들과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을 의식하여 그리하곤 합니다.

② 논리를 정연하게 하려 합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가지런히 들어맞는지, 모순되거나 배치되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문장은 물론이고 낱말과 토씨까지도 의미를 헤아리고 실재를 연상하며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③ 여지를 둡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8. 다중 원천

1) 기도와 묵상으로 영감을 구합니다.

기도와 묵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 적곤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렸습니다.

치우쳐 신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2) 인문사회 고전에서 사람과 사회에 관한 근본 담론을 살핍니다.

주로 성서와 한문 고전을 살폈습니다. 그 배움을 복지영성과 복지소학 복지논어로 정리했습니다.

치우쳐 근본주의, 원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거대 담론, 근본 담론에 심취할 때 도지기 쉬운 독선과 오만을 경계합니다.

3)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치우쳐 전통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유명하거나 권위 있다는 이야기, 유행하는 이론 따위를 그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4)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

사회사업 역사에서 배우고 체험에서 배우고 동료들의 실천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근본 담론도 사회사업 문헌도 이런 경험에 비추어 따져 보곤 했습니다.

치우쳐 경험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5)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 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며 궁리하곤 했습니다. 근본 담론과 사회사업 문헌과 경험도 이성으로써 따져 보곤 했습니다.

치우쳐 합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사회사업의 실체가 복잡다단하고 천차만별하여 이성으로써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9. 독법 +

1) 읽을 때

- ① 연구 방법과 범위를 감안하고 읽습니다.
- ② 머리말과 맺음말, 줄거리를 숙지한 후 본문을 순서대로 읽습니다.
- ③ 의미를 헤아리고 실재를 연상하며 정독합니다.
- ④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핵심어를 강하게 읽습니다.
- ⑤ 물음표에서는 답을 생각해 봅니다.
- ⑥ 마침표에서는 내용을 소화하며 이어질 내용을 추론해 봅니다.
- ⑦ 제목마다 질문으로 바꾸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본문에서 푼떨어지는 문장으로 답을 찾거나 만들어 봅니다.

2) 나눌 때

- ① 나누고 싶은 대목을 한두 군데 고르고, 각각 그와 관련하여 나눌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는 낱말 한두 개씩 써 놓습니다.
- ② 각자 고른 대목을 찾아 낭독하고 써 놓은 낱말을 실마리로 그 대목에서 일어난 생각, 관련 경험이나 지식, 성찰과 적용 따위를 나눕니다.
- ③ 동료가 말할 때 잘 듣고 잘 반응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움이 뚜렷해지거나 깊어지고 생각과 표현이 다듬어지곤 합니다.

사람과 사회

1. 자주, 자립, 독립

1) 자주는 주체로서 행함입니다. 주체라는 자격에 달렸습니다.

사전에서는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 자기주장대로 함’이라고 하는데, 사회사업에서는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됨’이라고 합니다. 사람답다 할 속성에 관한 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2) 자립은 자력으로써 섬입니다. 자력이라는 수단에 달렸습니다.

사전에서는 자립을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경제적 자립을 가리킵니다.

3) 독립은 ‘따로 섬’입니다. 집단이나 종속에서 벗어나 따로 서는 겁니다. 독립은 자치에 달렸습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생활함’입니다. 독립생활은 생활의 자치에 달렸습니다. 주거의 위치 규모 형태나 자립 여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4) 자립과 자주

사회사업에서 자립은 일부 사업에서 희망하는 목표이고 자주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사회사업은 자립 여부에 상관없이 자주 하게 돕습니다. 자립하지 못해도 자주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자립보다 상호 의존, 상호부조를 지향합니다. 사회사업에 자립을 돕는 일이 없지 않으나, 사회사업가의 마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인간적 사람살이’에 있습니다.

자립 여부로써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자주하지 않으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5) 자립과 독립

① ‘시설에서 나가기’ 곧 시설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을 흔히 자립이라고 합니다. ‘자립 지원’, ‘몇 명이 자립했다’에서 자립이 대개 이런 뜻입니다. 독립에 가깝습니다.

시설에서 나간다고 반드시 집단이나 종속에서 벗어나 따로 서는 건 아니므로 이른바 자립이 곧 독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장애인복지계에서 통용하는 ‘이른바 자립생활’은 시설이나 부모형제를 떠나 따로 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독립생활에 가깝습니다.

시설에 살거나 부모형제와 한집에 살아도 독립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생활이 흔히 말하는 자립생활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나 부모형제를 떠나 산다고 다 자기 생활을 자치하는 건 아니므로 이른바 자립생활이 곧 독립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약자

1) 약자도 살 만한 사회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약자도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은 약자를 도울 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주선함으로써 이런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조건입니다. 약자도 살 만하다고 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인 것은 아니지만, 약자도 살 만해야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수단은 (특별한 신분 계층 집단의 전용 수단은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를 가리킵니다.

공간 : 공원, 도서관, 카페, 식당, 백화점, 공연장, 박물관...

시설 : 버스, 지하철, 공중전화, 공공기관 공공장소의 편의시설...

제도 : 의료 제도, 교육 제도, 고용 제도, 주거지원 제도...

제품 :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도서...

서비스 :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여행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조직 : 동호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정당...

문화 : 축제, 연극, 영화, 콘서트, 시 낭송회, 연주회, 전시회...

2) 약자만 돕는가?

사회적 약자만 돕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사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 약자만 돕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사업 대상으로서 약자는 상황적 약자이지만 사회사업 대상자가 다 약자는 아닙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이 약자만 돕는 일은 아닙니다.

3) 약자와 사회사업가

그래도 약자를 돕는 일은 사회사업가에게 정명 같은 일입니다.

약자와 가까워야 사회사업 촉촉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 멀어지면 헛헛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그렇습니다.

승진할수록 약자와 멀어지기 쉽습니다. 승진을 피하거나, 부득이 승진 하더라도 직접 돕는 일을 아주 그만두지는 않음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얼마 동안 봉사하고 일선으로 돌아감이 좋습니다.

팀장·과장, 부장·국장, 기관장 따위의 직함이, 그런 자리로의 승진이, 약자에게서 멀어지고 사회사업가라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불행의 장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에게 일선 현장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이며 ‘사회사업가’보다 자랑스럽고 가슴 뛰는 직함이 무엇일까요?

평생 일선 사회사업가이면 좋겠습니다. 간부나 기관장이 되더라도 언젠가 일선 현장으로 돌아가 사회사업가로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있지 않으면서 일선의 일을 이야기하니 힘이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이러쿵저러쿵하는 이 안일함 비겁함 구차함에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공허함 처량함 서글픔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일선 사회사업가를 예찬하면서도 뒷방공론이나 하고 있으니... 애써 합리화해 보기도 하지만 헛헛함 쓸쓸함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3. 인공복지와 미래사회

1) 인공복지

사람에게는 자주하려는 마음과 남을 도우려는 마음,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자주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 복지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과 역량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인공복지는 복지 자연력을 대체하는 수단, 또는 그런 수단으로써 이루어 주는 복지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인공복지 수단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2) 미래사회

복지 자연력을 대체하는 인공복지가 늘어 갑니다.

이웃과 인정을 버리고 빠르게 비인간화하는 형세입니다.

인공복지로 이웃 인정 대신하는 사회, 온갖 복지가 있는데 이웃이 없고 인정이 없는 사회,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버린 사회…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될까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사람 사는 것 같았던 게 언제 적입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복지 뒤편으로 이웃 인정 자꾸 멀어져 갑니다.

다만 아직은 이웃 인정으로써 사회사업할 만합니다.

특히 도시는 사람이 많고 이웃 인정에 대한 그리움이나 목마름이 있어 이웃 인정으로써 사회사업하기 좋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① 이퀄스 (Equals 2015)

감정이 제거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로맨스
모든 사람이 평온하고 안전하지만, 감정은 “질병”으로 취급됨

② 더 기버 (The Giver 2014)

고통·차별·전쟁·색깔·감정이 제거된 완벽한 사회
가족, 직업, 감정, 출산까지 중앙에서 배정

③ 이퀄리브리엄 (Equilibrium 2002)

예술·사랑·슬픔을 제거한 완벽한 질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범죄. 이퀄스보다 훨씬 “감정 없는 인간”을 다룸

④ 소일렌트 그린 (Soylent Green, 1973)

식량과 주거는 배급되지만, 인간 존엄은 완전히 붕괴
복지가 비인간화의 도구가 되는 사례

⑤ 그녀 (Her 2013)

AI가 인간보다 더 깊이 관계 맺음. 인간관계의 공허함이 더 선명해짐

⑥ 매트릭스 (The Matrix 1999)

현실은 완벽히 제공되지만 가짜. 편안한 노예 vs 고통스러운 자유

제가 본 영화 ‘이퀄스, 더 기버, 이퀄리브리엄’과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ChatGPT에 물어 그 답변을 인용했습니다.

4. 사람다움의 확장

1) 사람은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나 기계와 달리 사람은 ‘자기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삶을 원하고 자기 삶을 꿈꿉니다.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인데, 자기 삶을 사는 데도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회사업가는 입주자가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도울 뿐 아니라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살게 돕기도 합니다.

일반 사회사업은 다릅니다.

복지관 사회사업가는 대개 특정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도울 뿐입니다. 그때 그 일을 넘어 ‘자기 삶을 살게’ 돕겠다고 하는 건 주제넘은 개입으로 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가는? 아이가 특정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주인 노릇 하게 도울 뿐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람은 ‘사람 구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울려 살다 보면 복지를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데도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회사업가는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도울 뿐 아니라 둘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을 잘하게 돕기도 합니다.

일반 사회사업은 다릅니다.

복지관 사회사업가는 대개 특정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당사자가 제구실하게 도울 뿐입니다. 그때 그 일 밖에서의 사람 구실은, 부모나 선생이라면 모를까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가는? 아이가 특정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제구실 잘할 뿐 아니라 그 밖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사람 구실 잘할 수 있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고 할 속성을 가리킵니다.

시설에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답다고 할 속성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게 돕는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는다.’ ‘사람 구실 잘하게 돕는다.’ ‘사람답게 살게 돕는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그럴 일이 있을까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관리 또는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무한 돌봄 같은 사례관리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어른다움

당사자가 어른이면, 사람다움뿐 아니라 어른다움까지 생각합니다.

어른다움은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해 주시거나 베푸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보살펴 주실 때, 어른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이렇게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실 때 어른다워 보입니다.

이러므로 어른은

1)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게 합니다.

2) 둘레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게 합니다. 어른 구실 어른 노릇 자체를 어른의 복지로 보고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주선하고, 시설에서는 생활 과업으로 지원하고, 사례관리 사업에서는 사례로 관리하시게 돕습니다.

장애나 치매증이 있어도 이렇게 돕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 구실과 노릇, 역할

1) 구실과 노릇

① 유의어라서 보통은 통용합니다.

② ‘어른 구실 어른 노릇’은 같은 것을 겹쳐 쓴 일종의 강조 표현이기도 하고, 구실과 노릇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나열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분하자면, 구실은 마땅히 할 일에 가깝고 노릇은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의도한 바는 그렇습니다.

③ 노릇은 ‘역할이나 구실을 낮추어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할 때,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줄 때, 당사자는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환자 노릇 하기 쉽고 심하면 거지 노릇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에서 노릇이 그러합니다.

2) 역할

국어사전에 ‘역할’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구실’, ‘소임’, ‘할 일’을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 대신 ‘구실’이라고 써 왔고 아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 ‘나누어 맡은 일’을 가리킬 때는 ‘역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역할이 그러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1. 사회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사업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면 사회사업가로 자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라도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중요한 물음이기는 합니다.

다만, 불쑥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질문에 누가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험하듯 묻거나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답하고 싶을까요?

대답한다 해도 어찌 일정한 답이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묻는지,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좋을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눈치는 어떠한지, 헤아려서 각각 달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거나 못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답할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뚜렷하면 좋겠습니다.

2.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 ‘사회사업이라는 말’에서 사회사업은 개념 정의의 대상으로서 사회사업입니다.

개념 정의의 대상으로서 사회사업은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입니다.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일 가운데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직접 대하여 돕는 일’쯤 됩니다.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쓴 ‘사회사업’은 대개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에서 사회사업이 그러하고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속성’에서 사회사업이 그러합니다.

연구 대상으로서 사회사업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사회사업도 대개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입니다.

예컨대 ‘사회사업 분야, 사회사업 현장’에서 사회사업이 그러하고,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사회사업 이상과 철학, 사회사업 주안점, 사회사업 기획과 평가’에서 사회사업도 그러합니다.

근본 관점 사회사업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은 당위 차원의 사회사업에 가깝습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사업은 마땅히 이런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요결에 나오는 ‘사회사업’이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을 가리키는지 근본 관점 사회사업을 가리키는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합성 명사의 문자적 정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봅니다.

1) 대등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를 각각 풀이하고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예컨대 남녀는 남자와 여자로,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의합니다.

2) 융합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의 의미를 융합하여 제삼의 의미를 만듭니다.
예컨대 춘추는 어른의 나이로, 갈등은 충돌 대립 따위로 정의합니다.

3) 종속 합성어

앞 명사로써 뒤 명사를 수식합니다. 앞 명사에 살을 붙이거나 앞 명사를 풀이하여 그로써 뒤 명사의 속성을 한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손수레는 손으로 끄는 수레로, 복지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사업 또는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 또는 사회가 이루는 복지로, 인권은 사람다운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로 정의합니다.

사회사업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 명사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여서 ‘사회적 사업’이라고 하고 ‘사회적’의 뜻을 풀어 그로써 뒤 명사 ‘사업’을 수식합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사업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속 명사인 ‘사회’로써 주 명사인 ‘사업’의 방법과 목표를 한정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이라는 합성 명사의 문자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4. 사회사업을 정의하는 방법

1) 원칙과 한계

사회사업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다른 일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사회사업을 두루 아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 사회사업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첫째,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대상도 소재도 방법도 사회사업만 그렇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회사업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그 실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만 사회사업이라거나 다른 건 사회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대안

첫째, 사회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도 사회사업‘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특히 사회사업이 그렇다고 할 만한 속성을 밝혀 그로써 대체로 다른 일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회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사회사업은 대개 그럴 수 있다고 할 만하게, 얼마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을 밝혀 그로써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합니다.

3) 관점과 주관

사회사업 개념은 특정 관점에서 나름대로 정의할 뿐이라, 그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정의하든 그게 곧 사회사업이라거나 모든 사회사업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사회사업이라거나 다른 건 사회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복지요결의 사회사업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배타적이면서 어지간히 포괄적이게 정의하려고 할 뿐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는 사회사업 개념은, 비교적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만 이런 건 아니라도 대체로 이로써 다른 일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다 이런 건 아니라도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대상자는 어떤 사업으로 도울 사람 또는 돕는 사람입니다.

사업에는 대상자가 있게 마련이니 대상자라는 용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화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복지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주가 되고 당사자는 객이 되어 버리는 방식, 당사자의 복지인데 사회사업가가 계획 통제하는 방식,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대상자라고 하면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대상화해도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용자라고 해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대상자나 이용자라는 용어는 꼭 써야 할 자리를 가려서 신중히 씁니다.

6. 관념상의 용어와 실재하는 당사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지역 주민, 입주자... 모두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관념상의 용어이고 집합 명사인데,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를 이로써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용어는 이렇게 쓰기가 꺼림칙합니다. 얼마쯤 문제를 암시하거나 나쁜 효과가 있는 용어, 예컨대 노숙인 수급자 장애인 동성애자 따위가 아직은 그런 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그런 편입니다.

이런 용어는 사람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거리감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경멸 혐오 소외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특정 당사자를 이런 용어으로써 지칭하면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개성의 ‘그들’이나 몰인격의 ‘그것들’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고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 같은,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 양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듣는 사람도 덩달아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민망합니다. 송구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 나름이고 자세 표정 말투 따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계하고 삼갈 일입니다.

특정 당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런 용어으로써 사람을 구별하기보다 그냥 이리저리하다고 서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하기보다 노숙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좋겠고, 수급자라고 하기보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좋겠고,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기보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지적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편이 좋겠고, 자폐아라고 하기보다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자폐성 행동을 하곤 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일에 어떤 도움을 원한다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7. 일반인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사업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정보원 공동게시판 [2103](#) '사람들이 사회사업가를 누구라고 하는가?' 김종원

‘어려운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아닙니다. 사회사업이 다른 일보다 어려운 사람의 복지에 더 기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개념이 그림직합니다. 일반인 관점 사회사업 개념으로는 손색이 없다 할 만큼 실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8. 자비량 사회사업

전공자 관점에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떤 곳이든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사회사업 소재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량 사회사업이 그런 일입니다.

자비량 사회사업은 양식을 스스로 마련해서 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기타 별도의 재원이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사업입니다.

생업이 있다면, 생업과 사회사업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생업 자체에 사회사업을 내장하거나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전업주부로서 사회사업한다면 어떨까요?

동네의 이런저런 공간과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사회사업 의미를 띠게 되지 않을까요?

미생물이 흙 속을 헤집고 다니며 생기를 소통시키듯, 두루 다니며 이웃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고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는 주부 사회사업가 한 명만 있어도 그 동네는 정붙이고 살 만하지 않을까요?

카페, 책방, 마을도서관, 꽃집, 사진관, 자전거포, 김밥·떡볶이 전문점, 분식집, 반찬가게에 사회사업을 내장하면 어떨까요? 시골에서 집배원, 이동 만물장수, 튀밥 장수로서 사회사업하는 건 어떨까요?

참조 : 복지경영 '자비량 사회사업가'

9. 돌레 사람과 지역사회

돌레 사람은 좁게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가리키고, 넓게는 자주 이용하는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돌레 사람은 좁은 의미로 쓰는 편이고,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를 때는 주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편입니다.

10. 욕구, 필요, 행복

1) 욕구

사전에서는 욕구를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욕구하는 것 곧 얻고자 하는 ‘무엇’이나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을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복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욕구하는 것이 다 복지는 아니고 복지라고 다 욕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2) 필요

사전에서는 필요를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필요한 것 곧 반드시 요구되는 그 ‘무엇’이나 ‘무슨 일’을 필요라고 합니다. 이런 필요가 복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사업으로써 이루려는 복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3) 행복

사전에서는 복지를 ‘행복한 삶’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회사업으로써 이루려는 복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행복한 수준이 아니어도 좋은 복지, 행복과 무관하게 이루고자 하는 복지, 행복을 초월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런 의미의 복지라면 사회사업 차원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조 : 복지[아성](#) ‘행복론’

사회사업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얻거나 하게 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으로써 사회사업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으로써 당사자가 얻게 되는 것이나 하게 되는 일 또는 이르게 되는 상태를 아우르기에는 ‘복지’가 더 적합합니다.

11.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1) 사회적 복지

사회 속에서 이루는 복지,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속에서 이루는 복지이고 그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 속에서 이루는 복지, 그 관계 속에 흐르는 복지라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복지를 위주로 하는 일입니다.

2) 비사회적 복지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지역사회 이웃 관계 밖에서 이루는 복지,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 또는 복지시설에서 이루는 복지입니다.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에만 흐르는 복지, 또는 복지시설에만 있는 복지입니다.

비사회적 복지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사안 상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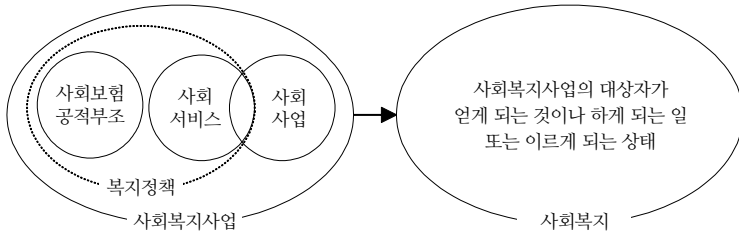
비사회적 복지가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사회적 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면 사회적 복지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쉬우니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12. 사회복지

1) 사회를 복지의 지원자로 보는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가 이루는 복지’입니다. 주로 사회 분야의 공적 기관이 이루는 개인들의 복지를 가리킵니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따위의 사업들로써 이루는 복지의 핵심 속성이 이릅니다.



2) 사회를 복지의 당사자로 보는 개념

가족복지, 여성복지, 학생복지 따위의 합성 명사와 같이 앞 명사 ‘사회’를 복지 당사자로 보면 ‘사회의 복지’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의 사회사업의 목표나 결과에 해당합니다.

사회사업은 사업이고 사회복지의 복지입니다. 사업은 그 종사자가 하는 일이고 복지는 사업의 대상자가 얻게 되는 것이나 하게 되는 일 또는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음식을 나누게 주선하거나 식사를 지원하는 일은 사업이고, 음식이나 식사 또는 배부름은 복지입니다.

비유컨대 사회사업은 작업이고 사회복지의 작품입니다. 작업과 작품을 크기로 비교할 수 없듯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도 그러합니다.

13. 복지정책

복지정책은 복지를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가리킵니다. 복지사업을 규정하는 법과 지침 따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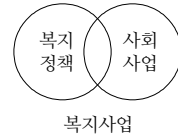
1) 복지정책과 사회사업

① 복지정책의 일부는 사회사업일 수 있습니다. 민간 복지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정책 사업이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의 일부는 정책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제도권 복지기관의 사업이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② 복지사업으로서 일반 복지정책은 대개 마이크로 수준의 대상을 주로 미시적 방식으로 돕습니다.

사회사업은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수준의 대상과 미시적 거시적 방식을 두루 아우릅니다.



사회사업은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당사자의 환경 체계까지 보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시적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반 복지정책 곧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또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에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거시적 방식의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가능할까요?

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단으로서 정부가 직접 또는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목표나 결과로서 대상자가 이르게 되는 상태, 또는 얻게 되는 것이나 하게 되는 일입니다.

14.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이쯤 될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무엇을 실천한다는 말일까요?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말일까요? 사회복지에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진 좀 억지스럽습니다.

실천은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행함'이라는 뜻이니,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행함'이라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온갖 일이 대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실천이므로 이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일로서 사회복지실천이게 하려면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 소관을 한정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에 특유하다고 할 만한 방법과 목표 따위를 밝히는 겁니다.

사회적 복지를 사회사업 소관 곧 사회사업에 특유한 방법과 목표라고 보면, 사회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실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회사업을 사회복지실천이라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닐까요?

15.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자원해서 돕는 일이라는 말이지만 보통은 자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돕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흔히 보수의 유무로써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수의 유무로써 돕는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한이나 책임, 양성 과정이나 자격 제도, 이런 것도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 분야나 소재, 돕는 시간이나 일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 차이는 돕는 행위의 방법과 목표에 있습니다.

1) 방법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2) 목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사회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와 본질상 다르다 할 게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도 이런 방법과 목표로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르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다워야 합니다.

16. 복지와 사회복지

복지와 사회복지의 개념은 정의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려내거나 도모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논함과 같고 천하 경륜을 논함과 같아 보입니다. 철인이나 정치가라면 몰라도 사회사업가로서는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사회사업가로서 어찌해 볼 수 있는 복지를 다룰 뿐이고, 당사자를 돕는 그때 그 관계에서 특정 복지를 다룰 뿐이고, 전체 사회복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아주 조금 감당할 뿐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니 복지나 사회복지를 두루 잘 알고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온갖 복지나 사회복지를 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7. 생태복지

생태복지는 생태적 복지 또는 생태적 복지사업을 가리킵니다.

자연생태와 조화롭거나 자연생태에 덜 해로운 복지. 자연생태를 좋게 하거나 자연생태를 활용하는 복지, 또는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 ①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 ②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물품을 사용합니다.
- ③ 벼룩시장, 텃밭 동호회, 숲 가꾸기, 새집 달아 주기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 ④ 생태 탐방, 숲에서 놀기, 등산, 주말 농장, 농촌 탐방, 자연 속에서의 휴식 요양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적으로 복지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자연생태보다 사회생태를 우선합니다.

자연생태에 좋더라도 사회생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그런 사업 그런 방식은 삼갑니다. 부득이하면 대책을 마련하여 신중히 합니다.

사회생태를 살리되 자연생태에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참조 : 복지야성 ‘자연생태와 사회생태’

사회사업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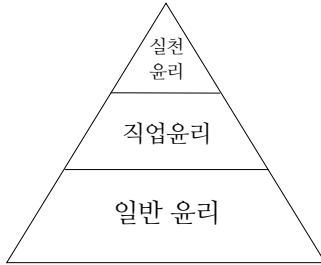
1.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잘 닿지 않습니다. 실용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무를 이 가치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꼭 들어맞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정합성이 떨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복지요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사회사업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 가치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2. 사회사업 윤리



사회사업 윤리의 층위

실천 윤리는 사회사업가이기에 지켜야 할 도리이고, 직업윤리는 사회사업가이기 전에 직업인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일반 윤리는 사회사업가나 직업인 직장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사회사업론으로 실용성과 정합성이 있게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윤리나 일반 윤리를 다룰 주된 권한과 책임 또는 전문성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도 직업윤리나 일반 윤리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권위나 신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3. 자주성과 공생성의 결정 요인

1) 자주성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주체 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이 있어야 자주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주체 의식은 자기가 주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려는 생각,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면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은 실제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자주성은 주체 의식이나 역량보다 돕는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 의식이 강하고 역량이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낮아집니다. 주체 의식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자주성이 높아집니다.

2) 공생성

공생성의 핵심 요소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있어야 공생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불어 살려는 마음입니다. 내면의 속성입니다.

공생성은 실제로 더불어 사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에서 공생성은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보다 돕는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계가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공생성이 낮아집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가 약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공생성이 높아집니다.

4. 자주성의 한계

1) 사회사업에서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린다 함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자주성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이 자주성을 살리는 일이라거나 사회사업으로써 자주성을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2) 사회사업에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대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할 뿐입니다.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하면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길 바라지만, 거기까지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돕기, 그때 그 일에서 자주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기, 사회사업가의 책임이나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아동사업에서는 ‘지금 이곳 이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쯤 선생 노릇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며 자기 삶을 살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기 어렵습니다.

3) 공생성은 다릅니다.

사회사업은 더불어 살게 돕는 일, 곧 공생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뿐 아니라 그때 그 일‘로써’ 또는 따로 일을 만들어서라도 공생성을 살리려 합니다.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도울 뿐 아니라 복지를 이루는 일로 공생성을 살리려 하고, 더 나아가 그냥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5. 주체성과 공동체성

1) 주체성과 공동체성은 명사 ‘주체’와 ‘공동체’에서 나오고, 자주성과 공생성은 동사 ‘자주하다’와 ‘공생하다’에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주체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든지 자주성과 공생성이라고 하든지, 짝을 맞추어 표현함이 좋습니다.

2) 주체는 ‘어떤 행동의 주’라는 존재를 가리키고, 자주는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주체라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현상이 더 유용하고 바람직합니다.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존재를 가리키고, 공생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사회사업에서는 공동체라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더불어 사는 현상이 더 유용하고 바람직합니다.

3)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는 데 ‘어떤 행동의 주’로서 행동하지 못해도 주인 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주체성으로는 이렇게 주인 되는 현상까지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의 조합을 다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은 공동체가 아니어도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공동체성으로는 공생의 실재를 포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4) 공동체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외인을 배제 차별하는 따위의 부작용도 있고, 학대 폭력 억압 갈등 다툼 따위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 경험이 없다는 사람, 공동체에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 공동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점도 걸립니다.

공동체성을 사회사업 가치로 표방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래저래... 사회사업 가치로는 ‘자주성과 공생성’이 적합해 보입니다.

사회사업 이상

1. 이상은 현실입니다.

1) 개인적으로 사회사업 이상은 인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고 인생이 여기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상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 이상은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기준입니다.

이상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지 역행하는지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상은 무엇보다 절실하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3) 이상을 거슬러 시세나 명리 따위를 좇아간다면 이는 진짜 현실 무서운 줄 모르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상과 다르게 어찌하겠거나 어찌하라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을 좇아 행할지라도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상도 없이 행하면 어찌될까요? 시설이 좋고 자원이 많고 기술이 좋을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만큼 더 빠르게 반복지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이상은 참으로 엄중한 현실입니다.

2. 사회사업 이상의 연구 방법

1) 실용성

① 근본을 밝혀 이야기합니다.

근본 없는 이상엔 믿음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에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이상과 실무가 따로 놀게 됩니다.

② 실무에 닿게 이야기합니다.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추상적이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③ 어떤 사업으로든 얼마쯤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상, 이루고 또 이루어도 여전히 바라볼 만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으면 포기하거나 소진되기 쉽고, 너무 낮으면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2) 당사자와 사람다움

① 당사자

사회사업 이상은 특정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 약자 전체를 두루 생각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생각하여 설정합니다. 이따라서 ‘당사자’ 대신 ‘약자’와 ‘누구나’로 이야기합니다.

② 사람다움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과정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이상은 과정 너머의 지향이라, 과정에서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 밖에서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 너머의 사람다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 지향하다

사회사업 이상은 사회사업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목표와 방향, 둘 다 지향하는 바입니다.

동사 ‘지향하다’는 목표와도 호응하고 방향과도 호응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이상은 사회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 또는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사회

이른바 복지사회는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 ①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
- ② 사회가 이루는 개인들의 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

어느 쪽이든 사회사업이 다른 일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복지든 개인들의 복지든,

사회사업가가 교사 의사 약사 기자나 청소부 목수 농부 상인 가수 배우 소설가 시인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이 학교 교회 은행 도서관 파출소나 편의점 식당 카페 호프집 꽃집 빵집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지사회는, 사회사업 소관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사업이 다른 일들보다 특별히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복지사회를 이룰 주된 책임이나 전문성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복지사회를 이루는 일은 천하를 경륜함과 같아서 사회사업가로서는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복지사회를 ‘사회사업’ 이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5. 사회 정의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말은

약자에게 불공정 불공평하다, 약자를 분리 배제 차별하거나 억압 착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 또는 일반 수단을 이용하는 데, 그 사회에 참여 기여하는 데, 그 사회에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정의롭다는 말은

약자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하다, 약자를 분리 배제 차별하거나 억압 착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도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 또는 일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사회에 참여 기여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정의는 대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사업 영어책에서 말하는 social injustice, unjust society, social justice, just society의 개념도 대개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약자와의 공생성,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 요소이고 사회 정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6. 사회사업의 가치

1) 사회사업 동기

신앙 적성 가정환경, 돌레 사람의 권유,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이 동기가 되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저 좋아 보여서 또는 성적 때문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소극적 동기에 가깝습니다.

적극적 동기는 사회사업의 가치에 있습니다.

사회사업에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이 있으므로 직업으로 택하여 마음과 힘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람들이 좋게 봐준다거나... 이런 점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사회사업할 수도 있고,

신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점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사회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에 좋게 여기는 가치를 좇아 행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홉 번 고쳐 죽는다고 해도 내 인생 아깝지 않겠다.’ 할 만한 가치이면 좋겠습니다.

2) 사회사업의 가치

보통은 ‘사회사업 가치’와 통용하는데 여기서는 구별하여 썼습니다.

사회사업 가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에서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윤리의 준거입니다.

사회사업의 가치는 ‘사회사업의 속성’ 가운데 (사회가 또는 우리가)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사회사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① 본질적 가치

약자와의 공생성은 사회 정의의 핵심 요소이고 이웃과 인정은 인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웃과 인정이 있어야 인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일입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은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요 생을 걸 만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사회사업하는 동기이고 저력입니다.

② 시대적 가치, 미래 가치

이웃과 인정을 버리고 채우쳐 비인간화하는 시대입니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비인간화에 맞서게 하는 일, 사회사업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미래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사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인간 의식을 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 끝내 인간 세상을 지켜 낼 것입니다.

임무가 중하고 길이 멍니다.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는 데 헌신할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천안문의 탱크맨이 그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진짜 인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듯이, 당랑거철 같아 보일지라도...

참조 : 복지소학 '임중도원'

사회사업 철학

1. 주체, 수단, 자리

복지사업으로 보이는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는가? 이는 복지를 이루는 주체, 수단, 자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1) 주체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2) 수단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이루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3) 자리

제 마당 제 삶터 밖에서 봉사자로 돕게 하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돕게 하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2. 보편화

1) 사회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라 함은 주로 약자에게만 제공하는 복지를 여느 사람에게도 제공하거나, 애당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사회사업에서 보편적이게 한다 함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2) 보편적 설계, 보완책, 보편적 서비스

① 보편적 설계 : 복지수단을 애당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장애인 노인 이민자 같은 사회적 약자라도, 가난하거나 시골에 살더라도, 여느 사람처럼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② 보완책 : 기존 복지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합니다. 특수 장치나 소프트웨어 추가, 요금 감면, 비용 보조, 보조 기기나 도우미 지원, 우선권 부여, 특례 적용 같은 조치가 보완책에 해당합니다.

③ 보편적 서비스 : 복지수단을 애당초 보편적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수단을 보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시골에서도 도시와 같은 요금으로 통화하게 하자, 청각 약자와 건청인 사이의 통화를 중개하자, 청각 약자도 티브이를 볼 수 있게 하자, 공중전화를 휠체어 이용자도 시각 약자도 쓸 수 있게 하자, 인터넷 정보를 정보 약자도 볼 수 있게 하자 했습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복지경영 - 복지정보화 - 복지정보통신

3. 평범화

이런 철학을 노말라이제이션, 정상화 이념 따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오래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 시설에 혁명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의식주와 일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단체복인 것처럼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후에는 각자 옷을 사 입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식당에서 줄을 서서 식판에 배식을 받아 단체로 식사했는데, 후에는 집마다 취사 조리하거나 주방에서 가져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밥 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도에 방들이 줄지어 있는 기숙사형 주택이었는데, 후에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으로 고쳐 짓거나 새로 지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24시간 방이나 공동 거실에서 지냈는데, 후에는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 입주자나 장애인을 도울 때 별나게 하면, 불쌍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인상이 그런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구실을 요구하기는커녕 기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상을 개선하는 방편의 하나로 ‘평범하게’ 합니다. 그로써 당사자의 사회적 구실을 가치 있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구실을 갈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돕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이 철학은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개념 가치 이상, 주안점과 방법에 들어맞는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 입주자나 장애인을 도울 때 무엇보다 중시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4. 자연주의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자주하려는 마음이 있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역량이 있습니다.

자주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과 역량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일이 자연스러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我自然(아자연)! 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하게 돕는 겁니다.

참조 : 복지소학 발전 편 ‘아자연’ | 복지야성 ‘자연주의 사회사업’

사회사업 주안점

1. 주안점의 실무 함의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

사회사업은 이것을 살펴 돕고, 여기에 미칠 영향에 주의하여 돕고, 이것을 살리는 데 중심 목표를 두고 돕습니다.

예컨대 생일잔치를 도울 때,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생태를 살핍니다. 이 생태를 살려서 생일잔치를 하게 돕고 생일잔치로써 이 생태를 좋게 합니다. 생일잔치를 해 주다 보면 둘레 사람이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무심해지지 않을까 주의하여 돕습니다.

시설 입주자나 장애인의 취미활동을 도울 때, 그와 같은 약자와 일반 수단 쪽 사람들 사이의 생태를 살핍니다. 이 생태를 좋게 하는 데 중심 목표를 두고 돕습니다. 입주자나 장애인 전용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일반 수단 쪽 사람들과의 생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생태와 강점과 관계

1) 생태와 관계

생태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서로 연결된 것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양태를 가리켜 생태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생태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의 양태로써 관계를 판단하여 별 관계가 아니라거나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상호배타적 항목인 것처럼 나란히 놓고 이야기함이 꺼림칙합니다. 다만 주안점에서 강조하려는 바를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둘 다 사회사업론의 중요한 주제이기에 각각 이야기해 봅니다.

구분하자면,

관계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사람,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사람과의 연결 또는 알음이고

생태는 연결 또는 알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며 사는 모습,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며 사는 모습입니다.

요컨대 관계는 ‘연결 또는 알음’이고 생태는 ‘사는 모습’입니다.

2) 생태와 강점, 관계와 강점

생태도 강점일 수 있고, 관계도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점만으로 사회사업 주안점을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생태나 관계를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이라는 수단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태와 관계는 그 자체로 사회사업의 중요한 목표점, 목적이기도 합니다.

3) '생태→강점→관계' 순으로 이야기해 온 까닭

“사회사업은 생태에, 생태 중에서도 강점에, 강점 중에서도 관계에 주안점을 둔다. 생태 안에 강점이 있고 강점 중에 관계가 있다.”

초기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 ⊃ 강점 ⊃ 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생태를 '상호작용하며 사는 모습, 상호작용의 양태'로 좁게 정의하지 않고 '생태 체계'와 동의어쯤으로 여겼습니다.

생태를 생태 체계로 보면 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순서를 바꾸어야 할까?

생태를 '사는 모습', '서로 연결된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태' 이런 개념으로 구체화하면 생태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관계→생태→강점' 순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관계를 생태 앞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계 생태 강점, 입에 붙질 않네요.

'생태 강점 관계'를 한 덩어리의 용어처럼 써 왔는데 바꾸어야 할까? 바꾸어서 얻을 실익이 충분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3. 생태 체계와 안전장치

1) 생태 체계의 원리

생태 체계의 어느 한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전체 생태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필요성이나 효과나 장점만 내세워 추진할 게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안전장치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안전장치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인력 수단 자원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밖의 인력 수단 자원이 필요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 활용하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할 뿐 아니라 수월하고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4. 약점, 장점, 단점

1) 흔히 가난 질병 노화 독거 중독, 기능 손상, 특이한 성격 외모 행동, 열악한 환경 같은 조건이 약점이 되곤 합니다.

약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약점을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2) 장점 자체가 강점은 아니지만 장점을 강점과 통용하곤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장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3) 단점과 약점도 통용하곤 합니다. 흔히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단점으로 보기 때문이고 실제로 단점이 약점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단점을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약점이나 단점도 문제라고 하고, 장점을 강점과 통용하고, 단점과 약점도 통용하곤 하는데...

사회사업에서는 되도록 정확한 개념으로 구별하여 쓰면 좋겠습니다.

5.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

1) 탄력성

어떤 조건이나 작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속성입니다. 사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예방 회피하거나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하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2) 회복 탄력성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예방 회피하는 강점은 되지 못합니다.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강점도 되지 못합니다.

서구의 사회사업론, 문제 중심 사회사업론, 소극적 복지사업 중심 사회사업론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할 자리와 그냥 탄력성이라고 해야 할 자리를 구분하여 알맞게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6. 당사자 쪽 강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경험 지식 기술 자원, 의지 성격 체력, 신앙 직업 취미 따위가 당사자 쪽 강점일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지역사회는 ‘당사자의 지역사회’ 곧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경험 지식 기술 자원, 의지 성격 체력, 신앙 직업 취미’ 따위가 곧 강점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어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불리하다면,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일에서 이런 것은 약점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것을 강점이라고 하지 않고 강점일 수 있다고 합니다.

7. 직접 강점과 간접 강점

1) 직접 강점

직접 강점은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강점,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강점입니다. 소극적 사업이 대개 이리합니다.

직접 강점을 활용하면 문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거나 힘들기도 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함이 좋습니다.

2) 간접 강점

간접 강점은 문제에 간접 대응하는 강점, 문제와 직접 상관없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예컨대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신앙생활, 글쓰기, 여행, 운동, 산책, 놀이, 공연 관람, 요리, 집들이, 사람 구실이나 어른 노릇...

이런 일 또는 이런 일을 돕는 적극적 사업은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 만하게 해 줍니다. 직접 강점과 같은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다룰 때 간접 강점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8. 간접 강점 예화

1) 사이렌과 오르페우스

지중해 어느 섬에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하여 선원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용맹한 영웅 올리시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노래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었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지나갔습니다. 유혹과 고통스럽게 싸워 겨우 건디어 낸 겁니다.

음악 영웅 오르페우스는 요정의 노래보다 더욱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에 홀리지 않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가까이하니 요정의 노래는 절로 멀어진 겁니다. 그리스신화

2) 바위와 강물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를 만나 “바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 “바위를 없애 주랴, 강물이 불어나게 해 주랴?” 하셨습니다. 위치만 리가 본 환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① 바위와 씨름합니다. 바위를 깨뜨리거나 치워 줍니다. 이는 미봉책입니다. 지금 이 바위를 해결해 주면 이곳은 지나가겠지만, 긴 항해에 이 바위뿐이겠습니까?

② 바위를 따돌립니다. 바위와 씨름하지 않고 강물과 상관합니다. 바위 때문에 뱃길이 막히지 않을 만큼 강물을 불립니다. 지금 이 바위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바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3)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Abba)

나는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꾸꾸며 살아간다면 마침내 이를 것입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봅니다.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해 낼 것입니다.

나의 꿈 그 환상이 있으니 어떻게든 현실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아갈 것입니다.

anything, the stream, reality, the darkness는 눈앞의 과제 또는 살아
가면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dream, song, vision, angel, something good, fantasy, destination
은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으면 당사자가 cope with anything
할 수 있고 cross the stream할 수 있고 through reality할 수 있고
pushing through the darkness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 주거나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
결해 줄까요? 꿈, 노래, 비전, 좋은 일, 이웃, 목표가 있게 도울까요?

9. 강점의 전제와 한계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이루려는 복지에 달렸습니다. 이루려는 복지 ‘그때 그 일’을 전제하지 않고는 강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루려는 복지 ‘그때 그 일’을 전제하지 않고 강점을 이야기한다면, 일상적으로 사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일 겁니다.

이는 시설 입주자나 주간센터 이용자처럼 사회사업 관계가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회사업 관계가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일’을 특정하지 않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장점을 가리켜 하는 말일 겁니다.

복지관 사회사업가가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을 특정하지 않고 강점을 찾거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관리 또는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무한 돌봄 같은 사례관리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 장점 이야기

1) 일종의 평가 행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쉬운데,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더 그럴 것 같아 삼가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판단하는 일 자체가 꺼림칙합니다. 그만한 가치관이나 안목이 있는가, 사회사업가가 할 일인가 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아동에게는 사회사업가가 얼마쯤 선생 노릇도 하기 때문에 장점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당사자가 어른이라면? 잘한다고 하는 그 일의 전문가라면?

가소롭게 여길지 모릅니다. 언짢아할 수도 있습니다. 건방지게 평가하려 든다고 핀잔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반응하든, 사회사업가로서는 선을 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사업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2)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눈높이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② 어떤 일에 쓸모가 있겠다 싶을 때, 활용할 만한 일이 생각날 때, 곧 어떤 일에 강점이 될 수 있을 때 그 일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되도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찾아서 이야기하려면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그리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장점을 강점으로 살려 쓸 그 어떤 일이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일인가? 사회사업가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인가? 돕기로 했거나 돕고 싶은 일인가? 아니라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11. 강점 관점

1) 사회사업의 실제

① 일을 선택할 때

- a. 당사자의 문제를 보고 소극적 사업이나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 b.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그로써 소극적 사업을 벌여 문제를 다루거나 문제와 상관없이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 c.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보고 그로써 소극적 사업을 벌여 문제를 다루거나 문제와 상관없이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문제를 보고 일을 벌이면 문제 관점, 강점을 보고 일을 벌이면 강점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다른 복지를 이루는 데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 일을 벌이면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강점을 보고 문제를 다루는 일을 벌이면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b가 강점 관점이면 c는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② 문제를 다룰 때

- a. 문제를 잘 보고,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약점을 다스리게 돕거나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약점을 다스려 줍니다.
- b. 문제를 잘 보고,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돕습니다.
- c. 문제를 잘 보고,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약점을 다스리면 약점 관점, 강점을 살리면 강점 관점이라고 할까요?

약점을 다스리려면 당사자 쪽 강점이든 사회사업가 쪽 강점이든 강점을 활용해야 하는데 a는 결국 무슨 관점일까요?

b가 강점 관점이면 c는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2) 이른바 강점 관점의 실제

이른바 강점 관점은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문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점을 당사자 쪽에서 찾아 그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는 관점입니다.

근래에는 일을 선택할 때도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이자는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찾아 적극적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강점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시 정의하자면, 이른바 강점 관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자는 관점’쯤 됩니다. 소극적 복지든 적극적 복지든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이루게 하자는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강점 관점이 가리키는 대상, ‘당사자 쪽 강점’의 핵심 속성이 ‘당사자 쪽’에 있을까요 ‘강점’에 있을까요?

대상의 핵심 속성이 ‘당사자 쪽’에 있는데 이름을 강점 관점이라고 하면 대상과 이름이 부합하지 않고, ‘강점’에 있어서 강점 관점이라고 하면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하는 관점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강점 중심이니 자산 기반이니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과 이름이 또는 이름과 개념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대상의 핵심 속성에 부합하되 다른 것과 구별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를 보지 말고 강점을 보자? 문제보다 강점을 보자?

보는 것이라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강점을 볼 때도 있고, 강점을 보고 그 강점으로써 다룰 만한 문제를 볼 때도 있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적극적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면, 문제를 보지 않고는 강점을 말할 수 없고 문제보다 강점을 보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활용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자, 사회사업가 쪽 강점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하자, 직접 강점 활용을 삼가고 되도록 간접 강점을 활용하자, 할 따름입니다.

그냥 강점을 보자거나 강점 관점이니 강점 중심이니 하지는 않습니다.

1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힘(파워) 있게 하기’입니다.

방법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자의 힘은 사회사업 과정에서 갖는 힘이고 후자의 힘은 사회사업의 결과로서 생기는 힘입니다.

1) 방법

방법으로서 임파워먼트는 사회사업 과정에서 ‘당사자가’ 힘 있게 하기입니다. 여기서 ‘힘’은 역량이 아니라 권한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버파워먼트는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기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가가 주인 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2) 목표

목표로서 임파워먼트는 당사자가 ‘힘 있게’ 하기입니다.

어떤 역량을 갖추게 하거나 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임파워먼트는 역량 강화나 세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나 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일에서도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힘 있게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력화하게 돕는 겁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력화하면 결과는 임파워먼트일지라도 과정은 오버파워먼트에 의한 디스임파워먼트일 공산이 큼니다.

3) 방법으로서는 임파워먼트는 역량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역량이 없거나 부족해도,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도,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로서 임파워먼트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만,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empower clients : 당사자가 힘 있게 하다

en- em- : 명사나 형용사에 붙여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다, ~으로 만들다, (~로 하여금) ~이 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를 만들.

예: enable, enlarge, endanger,
embed, embody, embrace, embroil, empurple...

5) 당사자를 힘 있게 하기?

우리말에서 흔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목적격 조사라서 살짝 걸립니다. 주격 조사를 써도 자연스럽다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리므로 ‘당사자가 힘 있게 하기’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이 말이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6) 권한 부여

권한 부여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당사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당사자가 권한을 갖게 되는 데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는 오버파워먼트이고 당사자를 무력하게 하는 디스임파워먼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에게 어떤 권한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그 권한을 확보하게 돕습니다. 권한을 확보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13. 문제를 다룰 때

1) 문제

사전에서는 문제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 ①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연습 문제)
- ②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환경 문제)
- ③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문제에 부딪히다)
- ④ 귀찮은 일이나 말썽 (문제를 일으키다)
- ⑤ 어떤 사물이나 사실과 관련되는 일 (양심의 문제)
- ⑥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이야깃거리가 된 일 (문제의 인물)

사회사업에서도 이런저런 의미로 문제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의미의 문제인지는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다룰 때’라는 제목에서 문제는 ③번에 가깝습니다.

소극적 복지의 상대어 곧 소극적 복지와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미의 문제라면,

일반적으로는, ‘나쁜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약점이나 단점, 환경의 장애나 위협 같은 한쪽 조건 자체도 문제라고 합니다.

생태 관점에서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좋지 않은 생태 현상 곧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 고통 갈등 따위의 어려움’을 문제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약점이나 단점, 환경의 장애나 위협 같은 한쪽 조건 자체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2) 대응책

생태 관점은 어딘가에 변화를 일으키면 다른 곳에 변화가 잇따라 일어나고 결국 문제 현상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쪽, 저쪽, 양쪽, 이쪽과 저쪽 사이, 이렇게 여러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환경의 약점을 다스려서 또는 강점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소극적 사업이나 적극적 사업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다스린다 함은 문제에 약한 점 곧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하거나 악화하기 쉬운 조건을 수정 보완, 해소 완화한다는 말이고 강점을 살린다 함은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하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을 회복 개발, 개선 강화하여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아이와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 ① 당사자의 약점 다스리기 : 통제나 훈육 방식을 바꿔 보게 합니다.
- ② 환경의 약점 다스리기 : 게임 시간을 조정해 보게 합니다.
- ③ 당사자의 강점 살리기 : 아이를 넉넉하게 대할 마음의 힘과 품이 생길 만한 활동, 예컨대 여행, 독서, 연극 따위를 주선합니다.
- ④ 환경의 강점 살리기 : 게임을 덜하게 할 만한 활동, 예컨대 숲속 놀이, 물놀이, 공놀이, 소꿉놀이, 보드게임, 캠핑 따위를 주선합니다.
- ⑤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 엄마와 아이가 함께 ‘비폭력 대화’를 배워 실천하게 합니다.
- ⑥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문제에 간접 대응하기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여행 놀이 요리 연극 합창 따위의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잘 받아들일 만한 것, 쉽거나 덜 어려워 보이는 것, 효과가 커 보이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 봅니다.

3) 한계

아이와의 갈등 문제, 그 배경이 이러하다면 어찌할까요?

엄마가 직장에서 장애 차별과 성 차별을 당하곤 합니다. 실직한 아빠가 자주 술을 마시고 엄마와 다텍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식생활이 불안정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의 비용을 대주지 못합니다. 아이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사의 말에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런 엄마와 아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바꿀까요?
어디까지 나설까요?

직장에서 받는 차별이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아이와의 갈등을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이 되니 엄마의 직장 또는 지역사회 전반의 장애 차별, 여성 차별 문화부터 바꿀까요?

실직한 아빠가 자주 술을 마시고 엄마와 다투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아이와의 갈등을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이 되니 아빠의 음주 문제부터 다룰까요? 실직 문제부터 다룰까요? 실직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노동 정책, 경제 정책 문제부터 다룰까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식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아이의 쓸 것을 제때에 충분히 대주지 못함이 아이와의 갈등을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이 되니 의료 제도와 주택 정책을 개선하라는 운동에 나설까요?

교사의 수업 방식과 언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엄마와의 갈등을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이 되니 교사의 수업 방식과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를 개선하라는 운동에 나설까요?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책임, 역량, 가용 자원과 시간,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그럼직한 대응책을 강구할 일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선택과 집중' 편

4) 다루기 어려운 문제

① 어떤 문제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더라도 기회비용이 너무 크면 이렇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보게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

② 어떤 문제는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붙들고 씨름해 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애매히 부담감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온 문제, 만성이 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도 압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 너무 힘들다, 내 이야기 좀 들어 주면 좋겠다,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다, 누군가 좀 함께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쭙잖은 기법 지식 정보 따위로 분석 상담 조언하려 들면 어찌 될까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처지 심정 노력을 알아주거나 열마끔 함께 있어 주기, 이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③ 어떤 문제는 대응하면 텃납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집니다.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짐짓 모른 채하고, 문제를 해소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적극적 사업에 힘씁니다.

④ 어떤 문제는 오래 다루다 보면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힘듭니다. 때때로 문제에서 벗어나 숨 돌리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다른 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 탄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 재미있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다룰 힘과 의지, 희망과 용기, 사람과 자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의 영향이 희석 상쇄되어 살아갈 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⑤ 어떤 문제는 거기에 갇혀 버린 듯 매여 살기 쉽습니다. 중증의 질병이나 장애로 또는 그런 가족을 돌보는 일로 그렇게 되곤 합니다.

인생의 다른 면을 보고 찾고 살리게, 그로써 즐거움도 누리며 살게, 돌보는 사람도 자기 삶을 살게,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⑥ 어떤 문제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상대하거나 당사자에 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주로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예컨대 자폐증이나 치매증 또는 정신 질환이나 술 중독증이 심한 사람, 틱 장애가 있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해 그리하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랫동안 눈총 비난 잔소리, 멸시 천대 따돌림 또는 지나친 관심이나 동정, 어설픈 개입 따위에 이래저래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숨 쉴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사회사업가마저 또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찌 될까요?

도와주려고 그런하지만, 문제 나뉘이고 이야기하기 나뉘이지만, 거기서도 여기서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제든 오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괴롭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찾고 만들고 이야기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웃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 인정받을 일을 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여 문제가 있어도 살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③~⑥은 시설 입주자나 일부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처럼 사회사업 관계가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치는 사람에게나 적용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적극적 사업, 판전, 다른 일을 누구에게나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14.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1) 문제의 근원을 다스리는 방책이 아니라면, 문제를 보고 덤벼드는 일이 그야말로 뒤흠다꺼리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장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앞세워 문제를 호도하고 약자를 통제하려는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삶도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역경과 순경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이루는 생활의 총체인데 한쪽을 없애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문제를 없앨 자신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개인의 한 가지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돕는 일, 적극적 사업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역량과 기회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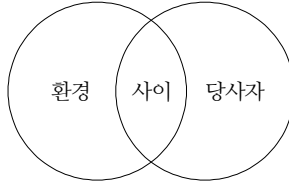
3) 함부로 문제라고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미명하에 무례를 범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어설픈 관심으로 멸정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 돌아섭니다. 긴급하거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돌아서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물러서니 무능한 사람, 냉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섭니다. 잘할 수 있는 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복지요결 이야기가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5) 사회사업가로서 꿈꾸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사회,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혼자서 아닌 사회,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 붙이고 살 만한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인간적인 세상입니다.

15. 이념과 관점



1) 우파 : 개인 관점

당사자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당사자를 바꾸려 합니다. 당사자를 치료 교육 후원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의학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쪽 배경의 실천 방식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좌파 : 환경 관점

환경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편의시설 같은 물리적 조건과 제도 인식 문화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여 당사자 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사회학 정치학 인권운동 시민운동 쪽 배경의 실천 방식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중도 : 생태 관점

당사자와 환경 양쪽을 헤아려 그 사이를 좋게 합니다. 한쪽의 적응보다 상호 적응을 돕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도울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도 하여 이쪽과 저쪽이 잘 맞게 하는 겁니다.

※ 사회사업가는?

1970년대까지 우파 색이 짙었습니다. 1980년 전후로는 좌파 성향이 강했는데 갈수록 우파에 가까워지거나 이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대학에서는 좌파나 중도에 가까울지라도 취업하면 우파로 변절하곤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듯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하는 겁니다.

16. 관계의 영역

1) 당사자 쪽 관계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넓게는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이웃 관계까지 아우릅니다.

그 가운데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은 관계, 복지를 이루는 데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관계, 사회사업은 이런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①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

당사자 쪽 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하여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이기도 합니다. 봉사자는 높고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대상자가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리므로 되도록 평범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게 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여느 관계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하지 않고, 도움 받는 사람을 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리므로 이웃을 봉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하거나 조금 더하게 합니다.

가끔 같이 밥 먹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운동 산책하거나 소풍 가기도 하고, 목욕탕 미용실 시장 식당 공원 극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 주기도 하고, 종중 안부를 확인하거나 축하 위로 응원하기도 하는, 이렇게 평범한 이웃으로 무엇을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돕거나 함께하게 주선하면 좋겠습니다.

② 이웃 관계의 독립

이웃 관계의 독립이 가능할까요? 바람직할까요? 이웃 관계를 주선한 후에는 빠져도 될까요? 빠져야 좋을까요?

이웃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한 후에도 조정 중재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살펴서 칭찬 감사로써 응원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기도 하고 당사자가 바뀌기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도 그러합니다.

관계 그물에 '벼리'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삼천 코라도 그것을 꿰어 지탱하는 벼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살펴서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선을 만들 뿐 아니라 거미처럼 어부처럼 선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 나름이고 사람 사안 상황 나름이겠지만, 이웃 관계의 독립을 선뜻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에 비하면 말단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준비 자원 재주가 좀 부족해도, 계획이 좀 엉성해도, 일은 잘될 수 있습니다.

①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스스로 경계합니다. 마음을 당사자보다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전문가인 양 행세하지 않고, 당사자를 그 복지의 주체로 존중하여 세우려 합니다. 더욱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② 인간적 관계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특히 약자와의 인간적 관계가 없으면 가슴이 식어 버리기 쉽습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없어집니다. 복지인생 건조해집니다.

당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겁습니다. 당사자들과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그들이 사회사업가를 도와줍니다. 잘하면 칭찬 인정해 주고 힘들어하면 위로 격려해 줍니다. 당사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축축하게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사업가 쪽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지역사회 지도자 후원자 봉사자들과의 관계, 개인적 인간관계를 아우릅니다.

사회사업가가 상관해야 할 사람을 당사자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다리 체계, 전문가 체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동료들과 지지와 격려, 자극과 책선,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더불어 절차탁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포기하거나 대충하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와 당사자를 이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와 지역사회의 사람 자원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다리 구실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표적 체계라 하는 변화 대상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그 사정이나 의도를 알아주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말하고 오래 참으면, 스스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4) 관계의 우선순위

① 이론에서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고 실무에서 사회사업가 쪽 네트워크에 주력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는가, 복지사업을 바라보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이론과 실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되는데 관계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면 당사자 쪽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고 당사자 쪽 관계에 주력하게 됩니다. 복지사업을 바라보면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거나 사회사업가 쪽 네트워크에 주력하게 됩니다.

② 당사자 쪽 관계를 살려 그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복지사업보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더 돋보입니다. 사회사업가보다 당사자가 더 빛나고 복지기관보다 지역사회가 더 빛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이 더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 쪽 관계를 앞세웁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회사업가 쪽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기보다 되도록 당사자 쪽 관계를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고 부족한 만큼 거둡니다.

17. 관계의 양면

1)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찌면 이런 관계까지 끌어안고 부대끼며 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2) 관계로써 돕는 일, 관계를 살리는 일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버리고 달리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까요? 사회사업가가 말입니다.

관계로써 돕는다고, 관계를 살린다고, 무턱대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관계,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당사자와 의논하여 그리합니다.

3) 관계가 약해졌으니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아주 히물어 버리거나 퇴화시켜 결국 복지 바탕을 고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방법

1.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독자나 청자의 경향을 감안합니다.

꼼꼼히 읽어 주기 바라지만 대충 훑어보고 새겨듣기 바라지만 대충 넘겨듣곤 합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로 뭉뚱그리고 한두 마디 자기 말로 바꾸어 기억하곤 합니다.

이러므로 되도록 세 마디를 넘지 않게 합니다.

한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을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쉽고 짧습니다. 알고 나면 ‘결연’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연’ 한 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1)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여차여차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은 묻기일까요? 의논하기일까요? 부탁하기일까요?

2) 항상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묻거나 부탁하기만 해도 될 일이 있고, 의논만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3) 항상 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논하다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에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는 한 덩어리로 붙여 읽음이 좋습니다.

3. 사회사업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 1) 이론과 실체가 가지런해집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앞서 밝힌 사람다운 사회다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부합하게 됩니다.
- 2)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 3) 사회사업이 재미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 4)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약간의 행정 사무와 기록을 더할 뿐입니다. 예산이나 지원 금품을 신청하고 받고 쓰고 뒤처리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4.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1)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이내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됩니다. 물을 것 묻게 되고 의논할 것 의논하게 됩니다. 부탁할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할 만한 때에 부탁하게 됩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강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황금 어장 만난 어부처럼, 노다지 캐는 광부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강점을 닮아붙어 불러들이는 마법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지식 기술 자원이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경험,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납니다. 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느끼는 기쁨 재미 보람 감동, 사람 사는 맛이 생겨납니다. 약자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거나 돕는 요령이 생깁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이는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강점이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까닭이 이런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려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더불어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5. 자기 결정권

1)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라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관계에서, 사회사업 안에서, 그럴 만한 일이 있을까요?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고 둘레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결정권 운운하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정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도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정책과 형편, 자신의 역량이나 권한과 책임,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의논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관계에서,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권리보다 책임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일에 가깝습니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두루 알아보고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고 스스로 검토 궁리하여 잘 판단 선택 결정하게 돕는 겁니다.

3) 사회사업에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실리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결정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듯 묻기만 하고 의논하지 않음은 애 취급하거나 아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민 취급하는 말, 우민화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핑계하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비를 면피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자기 결정권을 운운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고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일에서까지 그러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6. 자아 성향, 자아 상태

1) 사회사업가가 Controlling/Critical Parent ego가 강할 때는 권위주의에 빠져 당사자를 애 취급하기 쉽습니다.

2) 사회사업가가 Nurturing Parent ego가 강할 때는 온정주의에 빠져 당사자를 우민화하기 쉽습니다. enabler 되기 쉽습니다.

3) 사회사업가가 Adapted Child ego가 강할 때는 당사자와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근본이나 기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가 Adapted Child ego로써 말할 때 Nurturing Parent ego로써 응수하다 보면 의존성을 낳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 쉽고 결국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5) 당사자가 Free Child ego로써 말할 때 Controlling/Critical Parent ego로써 응수해도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항하다 좌절하고 결국 사회사업가가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언급할 때는 Nurturing Parent ego나 Adapted Child ego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계 또는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자아 상태로 당사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하므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Adult ego state로 상대함이 좋습니다.

일반 사회사업에서는 교류 분석 이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아 성향이나 자아 상태를 헤아리고 교류를 분석하여 무엇을 알아낸다고 해도 사회사업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당사자가 어떤 자아로써 말하든지, 사회사업가가 어떤 자아 성향이 강하든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의존하려 들거나 저항하지 않고 우민화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권위주의나 온정주의도 피할 수 있습니다.

7. 잘되지 않으면

- 1)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태도나 말투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경청하지 않으면 좋은 대답이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그 일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호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때가 아닌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호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 4) 이리므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잘되지 않으면
 - ①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에 맞게 했는지, 언어 복장 태도가 적절했는지, 정성스러웠는지, 존중 배려했는지, 경청했는지, 돌아봅니다.
 - ② 과업을 나누어 쉬운 것부터, 일상생활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 ③ 다른 때 다른 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8. 때

부탁하려면 그럴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해야 하는데, 명분과 진정성은 그 시간을 단축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부탁하는 이유를 밝혀 잘 설명하면, 진정으로 부탁하면, 바로 그때에도 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 ‘자기 방식’을 바꾸려 할 때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마땅해 보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9. 약자일수록

약자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해야 사람들이 당사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1)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경청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이렇게 하면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조심합니다. 이런 사회사업가 앞에서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복장과 품행에 주의합니다. 잘 차려입은 사회사업가, 품행이 반듯하고 점잖은 사회사업가 앞에서는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옷매무새와 자세와 말씨를 가다듬고 공손히 대하게 됩니다.

10. 공감과 동정

1) 공감

①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국어사전).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적 공감에 가까워 보입니다.

② 남의 슬픔 기쁨 불안 걱정 괴로움 따위의 심정을 알아줌.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 때 공감은 이런 행위에 가깝습니다.

③ 사회사업적 공감 : 당사자의 생각 감정 행위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아줌.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당사자의 상황을 헤아려 이해하고 그로써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애써서 하는 적극적 반응입니다.

외적 공감 곧 ②와 ③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신중히 할 일입니다. 엉뚱한 공감, 어설픈 공감, 기법 투의 공감, 주제넘은 공감, 상대방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공감은 표현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따로 표현하기보다 묻고 의논하는 데 반영하기만 함이 좋겠습니다.

표현한다면, 조심스러워하는 어조로 질문하듯 함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긍정하거나 부정 또는 교정할 수 있게, 당사자가 힘 있게, 자신을 낮추고 당사자를 높이는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 동정

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 (국어사전)

이런 동정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② 불쌍하다는 뜻이 대함, 그런 말이나 행동

이런 동정은 위험합니다. 인종 장애 외모 가난 같은 당사자의 조건 자체에 대한 동정은 물론이고, 차별 억압 학대를 당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대한 동정이라도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사업은 동정보다 인권과 정의 차원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11. 결언

결언은 ‘말을 구하다’로도 읽고 ‘구하는 말’로도 읽습니다.

1) 결언은 의견 정보 지식 따위의 말을 구함입니다.

그 실체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말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2) 결언은 주인 노릇이나 참여 도움 나눔 따위의 행동을 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실체 또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행동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요컨대 결언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복지요결에서 ‘결언’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12. 희망

1) 티핑 포인트

조금씩 발전하다가 그때까지 쌓인 것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더딜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쉽고 빠르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이내 그럴 만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럴 만한 일을 그럴 만한 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문리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사회사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2)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속에, 복지 기능이 살아나고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효용이 곱셈하듯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들의 실천 방법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3) 안정화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을 안정화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식을 경험해 보면 복지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이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뜻이 깊고 실익이 무궁하며 수월하고 재미 감동까지 있으니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얼마쯤 변동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맺음말

1. 적용

1) 때

때를 기다립니다.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시도합니다.

천천히 은근히 바꾸어도 변화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갑자기 드러나게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두르거나 강요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역사와 문화와 형편을 살피고 자신과 동료들의 처지와 역량을 헤아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아깁니다.

자신이 해 온 일이든 동료가 하는 일이든 비판을 삼갑니다. 한다면 먼저 성과와 의미를 찾아 긍정 존중하고 대안을 밝혀 신중히 합니다.

대안으로 좋은 사례나 구체적 계획을 내놓기 전에는 기존 방식을 건드리지 않음이 좋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례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면서 그로써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합니다.

2) 어디서부터?

① 누가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본인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나 조직이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자는 제도나 윗사람 탓하지 않고, 기관장은 직원들 탓하지 않고, 부서장은 부서원이나 관리자 탓하지 않고, 저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가지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② 누구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좋은 이론이라고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동조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이론에 동조하여 해 보겠다는 사람,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곧 의지 열정 능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③ 어느 사업, 어느 대상자부터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사업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여러 대상자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대상자까지 돌아볼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2. 전임자와 후임자

1) 전임자의 기록을 살핍니다.

전임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원칙 방법으로 해 왔는지,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문제나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 어떤 강점 자원 가능성을 보았는지, 후임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본인이 새로 구상하는 바에 관해 자문하고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자가 이룬 성과와 남긴 자산에 대해 감사합니다.

퇴사한 전임자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2) 전임자의 일을 무위로 돌려버리고 다시 터를 닦으려는 듯 초보를 반복하는 후임자가 있습니다.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전임자를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러 새롭거나 특별한 일, 자기만의 방식을 찾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사업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계승 발전될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개선 혁신하려는 노력은 귀합니다. 창의적 시도도 귀합니다.

다만 모든 직책에 갈릴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법이니, 전임자에게 행한 대로 후임자에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뒷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앞사람을 존중 배려하자는 말입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공 세우려는 욕심을 경계하고, 옛것이든 새것이든, 독창적이든 모방적이든, 다만 마땅함을 좇을 일입니다.

3) 기존 기관이나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① 법인과 기관의 역사 이념 미션 비전 정관을 살펴봅니다. 법인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② 1년쯤은 기존 방식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기록을 살펴봅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고 싶은지, 잘한 점과 희망 중심으로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미흡한 점과 대안이라면, 묻고 의논하거나 함께 공부하면서 직원 스스로 느끼고 찾고 이야기하게 돕습니다. 대안을 그 직원의 생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3.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적론 사고

1) 조건부적 사고

윗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규정 때문에, 평가 때문에, 예산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윗사람이 잘 이해해 주고 직원들이 잘 따라 주면, 규정이 바뀌고 평가 제도가 달라지면, 예산과 시간이 넉넉하면... 이런저런 조건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자원, 얻을 수 없는 자원을 공상 합니다.

자기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남 탓이나 핑계, 조건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제 두레박줄 짧은 줄은 모르고 우물 깊다 불평합니다.

2) 방법론적 사고

다른 사람이나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찾습니다.

자원이 있으면 선용하고 없으면 변통합니다. 산에 가면 산을 누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누립니다.

강점과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빠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찌해 볼 수 있는 것, 재량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냅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선 자기에게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론적 사고, 이 용어는 1990년대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4. 고백

다양한 사람 사안 상황을 겪으면서 얕이 알랑함을 절감합니다. 아는 것이 달라지거나 자신 없어지기도 합니다.

갈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영원히 구도자, 수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찾고 또 찾으며 닦고 또 닦으려 할 뿐입니다.

5. 원칙에 관한 생각

1) 사회사업에 절대 원칙이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항상 옳은 원칙이 있을까요?

생명 존중 원칙은 어떨까요? 이 생명을 살리면 저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 이럴 때는 어찌할까요?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겠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존엄하게 죽고 싶다면...

2) 내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사회의 전통이나 지배 담론, 내가 속한 집단들의 문화, 그 영향과 한계 안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보편타당한 원칙,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3) 내가 세운 원칙을 남에게 주장하거나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마다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음을 헤아려, 한두 번 이야기해 보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자칫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며 나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미처 생각조차 못한 뜻이 있을지 모르고, 그 행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인지 모릅니다.

4)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원칙만으로 규정 통제 평가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여지를 둡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통을 생각합니다. 원칙을 적용하되 통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고.

참조 : 복지**논어** '시중', '무적무막' | 복지**소학** '수연소위' | 복지**영성** '원칙과 변통'

이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세로 사회사업하려 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① 이것을 절대 원칙으로 삼으면, 절대 원칙이 있다는 주장,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고집하지 말자는 고집,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원칙처럼 됩니다.

② 이쪽을 인정하면 저쪽이 부정되는 상황, 이 가치를 따르면 저 가치를 거스르게 되는 상황, 사회사업에는 이러한 갈등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저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양립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둘을 겸하여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상대를 지나치게 인정 존중 배려하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약자를 차별하는 행위, 인권에 반하는 일,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는 방식까지 인정 존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송나라 양공은 초군이 강을 건널 때와 강을 건너와 대열을 정비하기 전에 공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의에 어긋난다 하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강을 건너와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송나라는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역사 이야기 1, 박덕규, 일송북, 2008. 80~84쪽에서 요약 | 십팔사략 고사

④ 이런 원칙의 가치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관용,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에 끝어다 씀은 온당치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라고 하며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고 소통은 절로 멀어질 겁니다.

6. 현실론

현실을 잘 알아서 현실에 잘 대처할 것 같은데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쫓깁니다. 현실 울무를 더 조이고 현실 부담을 가중하고 현실을 더 각박하게 만듭니다.

이러테면, 평가가 힘들게 하는 현실이라면서 평가에 목매고 경쟁함으로써 자신과 남들을 더욱 힘든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시간 돈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시간 돈 인력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일하며 바쁘다 돈 없다 힘들다 합니다.

사회사업 현장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현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면 현실론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1) 어떻게 돕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① 돈을 써서 돕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쓰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더 받게 되면? 그 만큼 간접 요구 평가 까다로워지고 일이 많아져 다시 돈이 부족하다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돈’을 써서 돕는 방식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사업비가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은 돈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고 돈을 쓰지 않아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② 기술로써 돕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사회사업가는 대개 별다른 기술이 없고 갖추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기술을 쓰려 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없고 다른 데서 따로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배운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활용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데 기술로써 돕자는 건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사회사업 나름이지만, 보통은 별다른 기술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사업은 기술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고 기술을 쓰지 않아도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③ 사회사업가가 해 주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사회사업가가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혼자 하니 실적을 많이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도우면 수월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실적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살아나서 다음에는 조금만 주선하거나 거들어도 쉽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회사업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룰 수 있는 건 무궁하니, 많은 실적을 원한다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사업가가 직접 복지를 이루어 주는 방식은 시간 돈 인력이 많이 들고 실적은 고만고만합니다. 시간 돈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이와 달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효과가 크고 효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돈과 인력 적어도 실적은 쉽게 빨리 많이 낼 수 있으니 이렇게 돕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적으로 경쟁하는 현실에서 어느 쪽이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니, 경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꺼림칙합니다. 우리를 경쟁시켜 조종하려는 쪽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면, 그 이상이 그릇된 현실 인식에 기초했거나 비현실적으로 세운 허황한 이상임을 방증할 뿐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두고 ‘그건 이상이다. 현실은 다르다.’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현실을 헤아려 하는 말일 테니 다르다면 그 사람이 보는 현실과 자신이 보는 현실이 다르다 할 일입니다.

3) 현실이 좋아지면 사회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갈매기의 꿈」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은 먹이를 쫓는 여느 갈매기들과 달리 ‘자유’를 쫓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완벽하게 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먹이 구하는 일, 현실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여느 갈매기들처럼 해 보기도 했으나 곧 부질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정하거나 비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차츰 높여 가며 꾸준히 새로운 비행술을 터득했습니다.

유선형 낙하 비행으로 바다 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하늘의 바람을 타고 내륙에 들어가 곤충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깃배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현실 ‘자유’를 쫓으니, 낮은 현실 ‘먹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보면 낮은 현실은 별것 아닌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저 갈매기들처럼 그렇게 낮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깃배가 늘어나면 갈매기의 삶이 달라질까요?

4) 현실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인식의 산물이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런 현실도 있고 저런 현실도 있는데, 무엇을 현실로 보며 어느 현실을 엄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더 두려워하거나 어느 쪽에서 더 인정받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현실이라고 합니까? 다른 현실, 더 엄중한 현실은 없습니까?

① 시세

정책이나 지침, 예산과 인력, 지도 감독, 인사, 시설 평가, 인간관계, 책임과 권한, 역량과 적성, 가용 시간과 자원 따위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이 좋아지면 사회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에서 현실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잘 살펴야 하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② 중요한 타자

당사자와 지역사회, 가족, 사회사업 스승 동료 제자 후배, 하늘과 역사가 엄중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③ 양심

양심은 사회사업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식입니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 사회사업 초심, 신앙 따위가 양심 노릇을 합니다. 이런 양심이 엄중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④ 이상

사회사업 이상은 참으로 엄중한 현실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이유이며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

1.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1) 사회복지사는 자격자이고 사회사업가는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사회사업가는 아닙니다. 여자가 다 엄마는 아님과 같습니다. 여자는 대개 엄마이거나 엄마가 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대개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사회사업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자는 엄마라고 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사회사업하는 사회복지사는 뭐라고 할까요?

2) 사회사업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를 붙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회복지는 사업의 목표나 결과로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의 전문가 또는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를 붙임이 억지스럽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달리 예컨대 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는 자연스럽습니다. 상담 변호 세무 회계 노무 중개 감정평가 주택관리가 모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경사나 정원사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안경이나 정원을 위해 하는 일을 가리키는 ‘행위성 명사’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사업이라는 행위성 명사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굳이 행위성이 없는 명사인 사회복지에 ‘사’를 붙여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할까요?

영어에도 사회복지사라는 뜻의 명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2. 존재 차원의 정체성

1) 사회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

- ①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 ②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 ③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당사자를 직접 돕는 사람

일반인 관점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쯤 될 겁니다.

2)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돕는 사람인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회사업가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은 당위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주선하고 거드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도 당위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3. 사회사업가 정체성의 한계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면 같거나 비슷한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도 사회사업가만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리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도 모든 사회사업가를 아우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체성을 밝히는 까닭은 사회사업가 노릇을 사회사업가답게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4. 주는 노릇

1) 사회사업가가 해 주거나 주면 안 될까요?

관계나 분위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혹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주를 앞세우고 친해진 후에는 더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거나 그러는 편이 좋겠다면 그렇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2)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①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②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고 사회사업가를 불편해하거나 피하기도 하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③ 주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3) 사회사업가가 일방적으로 해 주거나 주면

당사자가 자존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라해지기 쉽고 심하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주도권 통제권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있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 욕구, 이는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의 내적 근거가 강한 사람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애정 욕구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인간관계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4) 사회사업가가 모아서 주는 노릇 하다 보면

마치 댐에 저수하여 수도라는 이름으로 급수함으로써 세상의 시내가 마르고 우물이 썩어 버리듯 세상의 복지도 그럴 겁니다.

복지 저수지에 복지가 가득하고 복지 상수도 복지 급수대가 늘어 가지만 지역사회는 복지가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살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써 나누게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원을 가져다가 ‘외장형 복지사업’ 만들기보다, 저마다 그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복지 내장형 사람살이’를 이루게 돕습니다.

5.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1) 탈무드 이야기

- ① 생선을 준다.
- ②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생선을 살 형편이 안 되니 생선을 준다? 고기를 잡을 줄 모르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 쪽에만 있다는 듯 당사자만 상대하는 방식이고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주는 노릇 하는 방식이라, 사회사업가가 취할 답은 아닙니다.

생선을 줌으로써 족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주기 나름이고 가르쳐 주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묻는 것이라면 둘 다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2) 사회사업 이야기

- ① 당사자가 생선을 구하게 합니다. 정부 기관에 신청하게 하거나,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아 부탁하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생선을 주게 합니다. 고기를 잡거나 생선을 살 때 조금 더 잡거나 사서 나누게 주선합니다.

- ② 당사자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길에 같이 가서 가르쳐 주게 주선합니다.

- ③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구를 확보 또는 공유하게 돕습니다. 어장에 장애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게 돕습니다.

6. 만물박사 팔방미인

사회사업가는 만물박사 팔방미인이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아는 것이 없고 재주나 자원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지식 재주 자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많고 재주 자원이 많아도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줄 수 있는 복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룰 수 있는 복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자기 지식 재주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준다면 그 지식 그 재주나 자원이 그의 그릇 그의 한계입니다.

7. 꺼져 가는 심지, 상한 갈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잘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돌우고 상한 갈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지만,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고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약한 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이지만,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2% 부족하면 2%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이지만 98%까지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8. 걸음을 멈추면

규정 예산 인력 따위를 핑계하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보수 문제, 기관의 문제, 직원들의 문제가 크게 들어옵니다. 불평불만 함담이 늘어 갑니다.

이럴 때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현장과 멀어졌다는 것을, 걸음을 멈추고 사무실에서만 일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9. 사회사업가의 별칭

1) 사회공작원

사회사업가는 사회가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공작하는 사람, 사회공작원입니다

2) 사회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려고 운동하는 사람, 사
회운동가입니다.

3) 저항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세상의 비인간화에 맞서는 저항운동가입니다.

4) 친민가

사회사업가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는 친민가, 사람들이 서로 친하
게 하는 사업을 하는 친민사업가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친민지도'

Social Designer & Engineer

Social Activist, Social Crusader

Resistance to Dehumanization, Humane Resistance

Relationship Builder, Community Weaver

복지관 사회사업

1. 복지관이 시설? 전달기구?

사회복지관이란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은 ...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출처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1) 시설?

복지관 건물은 시설이지만 그렇다고 복지관을 시설로 정의함은 적절
치 않습니다. 복지부 청사는 행정시설이지만 복지부를 시설로 정의하
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시설이라 하니 시설 중심 서비스를 하기 쉽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지관에 오게 하여 행사 프로그램 치료
교육 보호 상담했느냐는 식의 실적 평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2) 전달기구?

전달 기능이 없지 않고 전달도 하기 나름이지만, 문자 그대로 ‘전달’한
다는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복지관이 전달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
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전달기구라는 말 자체가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2. 이용 시설

누가 이용하는 시설인가?

복지관은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시설입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 주체인 시설입니다.

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아동 등 지역 주민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시설,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사회교육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시설, 지역 주민이 이용주체인 지역 주민의 시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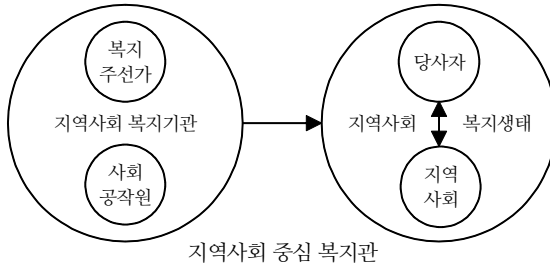
기관이 복지를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시설, 기관이 이용 주체인 시설이라면,

문화센터, 이벤트 업체, 배급소, 봉사자 도우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 식당 같은 요식업소, 반찬 도시락 배달 업체, 이발소 미장원, 치과진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따위의 진료소, 휴게소 사교장 기원 당구장 노래방 같은 여가시설, 방과 후 보호나 주간보호 단기보호 따위의 보호시설, 평생교육 조기교육 공부방 학원 같은 교육시설...

복지관이 이런 업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과 경쟁하는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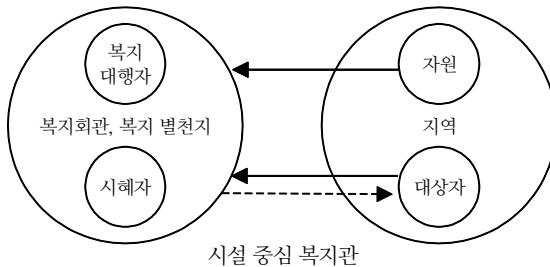
복지관이 제공 또는 전달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각각 이런 곳들에 용역으로 맡기고 복지관만큼 보조금 후원 봉사 면세 따위의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차별성이 있을까요? 전문성이나 경쟁력은 어느 쪽에 더 있을까요?

3. 지역사회 중심 복지관과 시설 중심 복지관



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복지를 이룹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빛나고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많아지고 약자와의 관계 소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로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복지관이 사람들이 모이는 복지회관, 별천지 같은 곳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복지관에 후원하거나 복지관에 와서 봉사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빛나고 복지관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시설 복지사업, 복지 대행업, 복지 배달업이 증가합니다.

4.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문제의 근원이고 복지의 바탕입니다.

지역사회를 놓아두고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어찌해 보려 함은 무모한 일입니다. 불 위에 썰을 던짐과 같습니다. 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곧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의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로써, 곧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지역사회의 수단 자원을 대신하여 사회사업가 쪽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지 않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복지를 이루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방식이 잘 맞지 않는 사회사업가, 자신의 지식 기술로써 직접 돕는 편이 최선인 사회사업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따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외장형 복지사업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내장형 사람살이가 좋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에 갔다가 오듯 동네 자원이 복지관에 갔다 오는 식의 후원 봉사보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직접 주고받는 나눔 도움이 좋습니다.

5.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

- ① 지역사회가 이루는 복지
- ② 사회의 복지

2)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지역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사업이 대개 이런 일입니다.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함은, 복지관 사업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개념입니다. 지자체 기업 학교 시민단체 따위의 일도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관 사업이라면 목표를 한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조직을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게 돕는 일’이라고 함도 복지관 사업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개념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교통 식량 환경 노동 문화 종교 주택 스포츠 여가 의료 치안 같은 문제가 모두 지역사회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돕는 일이 다 복지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또 해결하게 하려고 지자체와 의회, OO위원회, OO협회, 학교, 기업, 종교단체 따위 조직을 만드는 데, 이런 일을 다 복지관의 지역사회조직 사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6. 지역사회 개념

1) 공간

기관이 속한 행정 구역 또는 조례나 정관 따위로 정한 기관의 사업 구역입니다. 그냥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2) 사람

기관과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지역이나 기관과 관련 있는 사람까지 아우르기도 합니다.

3) 용례

① 지역사회복지

2)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루는 복지 또는 그런 사람의 복지입니다.

② 지역사회에서

1)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2)사람 사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③ 지역사회로써

2)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1)지역의 일반 수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④ 지역사회조직

a. 방법 : 2)사람의 조직을 만들거나 1)지역에 있는 조직과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 ‘방법’입니다.

b. 사업 : 2)사람의 조직을 만드는 일 또는 1)지역에 있는 조직과 협력하는 일, ‘사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⑤ 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으로써 돕는 ‘방법’ 또는 2)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 지역 주민이 자원?

1) 복지사업을 중심에 두고 보면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개발 동원 활용할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2)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중심에 두고 보면 지역 주민은 그 사람살이의 주체입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사람’입니다.

자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 재능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따위가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수단이 자원입니다.

자원이라는 용어에 관한 사전의 풀이나 언중의 이해를 시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좀 민망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지 않으나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생각하며 그 사람살이를 세우는 데 뜻이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용어와 개념과 실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8.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가?

1) 지역 주민이면 더 좋은 관계로 일할 수 있을까요?

사람 나름이고 지역 나름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 인간관계가 사회사업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적 인간관계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적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이해관계자로 얽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도 한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이니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쪽이나 도와주는 쪽이나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이든 아니든,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사회사업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됩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잘됩니다.

2) 지역 주민이라고 지역과 주민을 잘 알까요?

① 주민 나름 아닐까요?

주민이라서 더 잘 아는 것도 있으나 오히려 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 제대로 아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할 대상도 나름입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고, 같은 주민이라도 어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아는 것도 나름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할 만큼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② 지역 주민이면 지역 주민을 더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집단화, 일반화를 경계합니다.

저마다 겪는 어려움의 종류나 정도가 다르고 욕구나 필요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관계망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자산·소득이나 생활환경 따위의 온갖 조건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데, 누가 지역 주민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이든 아니든, 지역과 주민을 알든 모르든, 사회사업은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입니다.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하는 데 필요한 만큼 알아야 할 건 알게 됩니다.

3) 지역 주민의 처지에서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의 처지나 시각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주민 나름이고 같은 주민이라도 때에 따라 상황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처지에서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요컨대 지역 주민 여부는 사회사업에 그리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지역 주민이어야만 되는 일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어서 유리할 수 있으나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안 상황 나름이고 사회사업하기 나름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 됩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잘 됩니다.

9. 주민조직의 독립?

1)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생업이나 집안일이 아니면 마음 쓰기 어렵고 어떤 일이든 전념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참여할지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어렵습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꾸려 나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민조직은 인간관계에 민감합니다. 지도자가 바뀌거나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해 질투 비판 구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자기 이해가 걸린 일이 아니거나 의무가 아니라면 책임지고 지키려 들지 않을 겁니다. 싫으면 그만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 그렇게 함이 좋을까요?

사업 나름이지만, 조직의 사업을 주민이 책임지고 잘해 나가려면 자기 일에 소홀해지거나 여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수단이 되는 조직, 조직의 사업을 위해 구성원을 동원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 생활과 별도로 뭔가 해야 하는 조직, 이런 조직은 되지 않게 함이 좋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이런 조직이 생긴다면 꺼림칙합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건 더욱 그러합니다.

주민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이익·취미·자치를 위한 조직은 사회사업가가 만들더라도 계속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조직이라도 그 조직 자체의 상근자가 생기면 그러합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독립할 수 있겠고 독립하는 편이 좋을 수 있겠으나 독립이나 유지 여부로써 조직 사업을 평가할 건 아닙니다.

10. 생활복지운동

1) 목 좋은 곳에 현수막 패널 따위를 설치하고 홍보지를 나눠 줍니다. 홍보지 앞면에 삽화 몇 장면과 문구 두어 개를 넣고 뒷면에 복지관 사업이나 주민 활동을 소개합니다.

스티커나 그림엽서나 책갈피나 소책자도 좋겠습니다. 행인들이 즉석에서 참여하거나 함께 즐기는 활동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한 가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매월 한두 시간씩,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꾸준히 진행합니다.

2)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기획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운동이라면 아이들이 문헌을 찾아보고 서로 의논하여 계획하게 돕습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돕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과업을 나누어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홍보물 제작 의뢰와 광고 협찬 개발도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하게 돕습니다.

3)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운동 주제와 관계있는 주민조직, 기관 단체 기업 가게들과 같이 합니다. 여러 복지기관이 연합으로 합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꽃 가게, 10월 24일은 과일 가게, 11월 11일은 떡 가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살리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상점들의 홍보지나 포장지, 개인택시의 명함, 식당의 반찬 종이나 메뉴판 냅킨 소품 사은품에 관련 그림이나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요?

전염병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갈등 혐오 차별 같은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 여러 복지기관이 함께 나서면 어떨까요?

4) 홍보물 도구 소품 기념품 삽화 문안 장식 따위의 기획 디자인 스타 일링이 중요합니다. 공모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좋겠습니다.

11. 평생학습 사업

악기, 노래, 춤, 미술, 서예, 구연동화, 외국어, 인문, 클래식, 가베·애드
라짐·레고, 바둑·장기, 요리·효소·장, 차·커피, 마사지·수지침, 바느질·
뜨개질·퀼트, 옷 수선, 수납정리, 집수리·목공, 천연염색, 한지·리본·비
즈·찰흙·비누공예, 재활용, 종이접기, 컴퓨터, 꽃꽂이, 생활체육, 탐구
실험, 육아, 반려동물 돌보기, 화초재배, 텃밭농사...

강좌마다 해당 분야의 동호회나 전문 기관 단체 업체, 복지관 수료자
모임 같은 지역사회 조직을 찾거나 만들어 위탁 운영합니다. 이런 조직
이 각각 자기 분야의 강좌를 기획하고 홍보 접수 운영 관리합니다.

복지관은 공간 장비 물품 예산 행정을 지원합니다. 지도자 연수, 공동
브랜드 활용, 홍보물 공동 제작, 전문 강사 섭외, 연합 행사, 강사 회의
따위를 주선합니다. 수강료는 복지관이 직영할 때처럼 저렴하게 하고
수익의 일부를 법인이나 복지관에 기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이 커지고 복지관의 사업 기반이 확
대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지관의 명분과 실리를 다 살릴 수 있습
니다. 지역사회 조직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복지관 기관은 지역사회가 평생학습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기관입니다. 복지관 시설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평생학습 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의 시설입니다.

1) 사회교육을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되도록 풀어낼 수는 없을까요? 강좌에 따라, 복지관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교육은 대체로 일반 시민이 사회복지사 도움 없이 스스로 해 오던 자발적 활동입니다. 취미로 하든 영리로 하든 복지관 밖에서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잘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 홍보, 모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복지관 사업으로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기획, 홍보, 접수, 관리,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조직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주체로 세워 그들의 삶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되도록 하되, 수익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직을 찾거나 만들어 강좌를 운영하게 하고, 그 조직과 복지관이 수강료 수입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는 사회교육사업을 복지관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민조직들의 공동 참여로 하나의 브랜드사업을 만들어 각 조직이 자기 명의로 단위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교육하는 동호회, 복지관에서 공간을 주선하고 거들어 주면 자체 교육사업을 해 보겠다 할 조직, 이런 조직을 찾아 컨소시엄을 제안합니다.

복지관의 사회교육 강좌를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해당 분야 전문 교육기관을 복지관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동호회 조직이나 전문 교육기관이 개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의 기획과 홍보, 접수, 준비, 진행, 회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주관합니다.

복지관은 공간·장비·물품을 주선·조정하고 행정·기술을 지원합니다. 지도자 연수, 공동 브랜드 개발, 홍보물 공동 제작, 전문강사 섭외, 연합 행사, 강사 회의 등을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수강료는 복지관이 직영할 때와 같이 저렴하게 하고, 수강료의 일부(복지관이 직영할 때 얻는 수익만큼)를 법인에 기부하게 합니다.

2) 프로그램의 겉모습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라도, 실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의 강점이 발휘되고 주민의 역량이 자라납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살아납니다. 복지관의 활동기반이 탄탄해집니다. 지역사회 복지 자산이 축적됩니다. 복지관 사업에 매우 중요한 지지·협력 체계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강좌 및 수강생 관리를 주민조직 혹은 전문 교육기관이 맡게 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 핵심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회교육사업을 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 주민조직이나 교육기관과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조직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주체로 하여 그 명의를 세워 주고 이익을 얻게 하면, 상생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도, 복지관도, 명분과 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이 이용 주체인 시설, 이용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사회교육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시설입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복지를 이루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지역사회 복지 지원기관」입니다.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회교육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사회교육복지 지원기관입니다.

복지관의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며 주민을 만나고 조직하고 설득·협상·주선하여, 복지관 건물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복지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12. 반찬 사업

1) 반찬 마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식단도 짜고 장도 보고 조리도 하고 그렇게 반찬 만들어 나눠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럿이 모여 함께 만드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거들어 드릴 테니 어르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시기 힘들면 저희 차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찬 마실을 제안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장에 갑니다. 장보시는 풍경이 정겹습니다. 젊은 사람이 짐 들어 드리고 운전하지만 누가 장을 봤다 하실까요?

어떤 분은 앉아서 재료 손질하시고 어떤 분은 주방에 서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저 간만 보시고 좋다 하시거나 조금 더 넣어라 물 더 부어라 훈수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이리저리 심부름하고 이것저것 거들어 드리지만 누가 반찬 만들었다 하실까요?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반찬 만드시고 점심 지어 잡수시고 차 마시고 각자 드시고 싶은 반찬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이 동네 저 골목 가까이 사시는 어르신 몇 분과 둘레 사람 몇 명씩 모여 반찬 마실 하시게 주선하면 어떨까요? 반찬 만드실 의욕이나 기력이 약해지신 분,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며 반찬 만들고 점심 드시고 차 한잔하시고 반찬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하기 어려우면 나들이 행사처럼 가끔 한 번씩 해 보면 어떨까요?

2) 반찬 이웃

먼저 어르신에게 여쭙고 의논한 후에, 요청이나 동의하에, 이웃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르신께 인사하고 여쭙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반찬은 어떻게 해 드시는지, 어떤 반찬 좋아하시는지, 마을에서 여차여차 주선해 볼까 하는데 어르신 생각은 어떤지 여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골목·동네·단지·마을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주머니 반찬 만드실 때 한 그릇, 한 접시, 조금 더 하셔서 나누시면 어떨까요? 가끔 함께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장에 가실 때 함께 가시거나 필요한 것 여쭙어 사다 드리면 어떨까요? 이웃에서 이미 잘 살피 드리고 계시겠지만, 혹 저희가 거들 일은 없는지요?”

이렇게 주선하면 이웃은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을 돕습니다.

어르신은 이웃이 반찬 가져오니 무엇이든 담아 주려 하십니다. 어떻게든 갚으려 하십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게 마련,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살리고 사는 살림살이입니다. 봉사자와 대상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체와 사람살이의 주체로 주고받으며 서로 살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살려 반찬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반찬 복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복지도 이루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는 정이 흐르는 겁니다.

3) 반찬 배달

반찬 마실, 반찬 이웃으로써 반찬 복지 이루는 어르신이 늘어 가는 만큼 기존 반찬 배달 사업의 대상자를 줄여 갑니다.

기존 반찬 배달 사업에서도 어르신이 주인 노릇 하시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게 합니다.

반찬 종류를 의논하고, 재료를 구입 또는 주문 검수하고, 창고나 냉장고에 넣고 꺼내고,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배달 수거하거나 가져가고 가져오고, 반찬통 세척하고 넣고 꺼내고, 기록하고... 과업을 세분하여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게 주선하고 거들어 드립니다.

반찬 재료를 업체와 계약하여 일괄 조달해야 한다면 ‘장보기’는 빼고 업체 선정이나 조달 과정에 참여하시게 합니다. 위생이니 보건증이니 하는 조건이 까다로우면 ‘반찬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조직이나 동아리 사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도 당신 반찬 생활의 주인 되게 합니다. 반찬 종류를 예고하고 그 반찬의 좋은 점과 드시는 법을 소개합니다. 개인별 욕구를 일일이 맞춰 드리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배달해 줄 사람 찾는 일을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4) 2006년 여름 농활 사례

50가정 어르신께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바꿔 보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반찬 마실 제안하고 의논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반찬 만들면 어떨까요? 이야기도 나누시며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나누어 만들면 어떨까요? 걸어오시기 힘들면 차로 모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어르신 열다섯 분이 모이셨습니다. 이 가운데 장보러 가길 원하시는 여덟 분을 수행하여 시내에 나갔습니다.

삼삼오오 카트를 밀고 다니며 담소도 하시고 시식코너에서 시식도 하시며 쇼핑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어컨 바람 시원하고, 카트 밀고 의지하여 다니니 힘들지 않고, 이야기 나눌 친구들이 있고, 따라다니며 거들어 드리는 젊은이가 있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만져 보고 맛도 보는 즐거움이 있어 더욱 좋은 나들이였습니다.

기관의 승합차로 다녀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계산도 하고 짐도 옮기고 운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장을 본 겁니까?

돼지고기, 멸치, 두부, 닭, 애호박을 사와서 웅기종기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젊은 사람들 가르치며, 정겹게 즐겁게, 두부조림, 장조림, 멸치조림... 당신 손으로 그렇게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시원한 정자에 앉아 어떤 분은 마늘 까시고, 어떤 분은 파 다듬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땀 흘리며 끓이고 삶고 데치고 조리시고, 어떤 분은 그저 이렇게 다듬어라, 소금 넣어라, 적당히 잘라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간만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리 나르고 저리 옮기고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누가 반찬 만든 겁니까? 이날 사 온 닭으로 삼계탕 끓여 잡수시고, 각자 당신께서 드시고 싶은 반찬 필요한 만큼 가져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못 오신 분들의 반찬도 챙겨서 갖다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할 상대도 없이 발일하시거나 무료하게 지내시는 어르신, 이제는 반찬 만드실 의욕이나 힘이 없어진 어르신, 일주일에 하

루만이라도 이렇게 반찬 마실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시내에 장보러 가시고, 옹기종기 도란도란 반찬 만들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네 젊은 사람들도 동참하여 교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6. 7. 27~

어르신을 돕되, 부족한 2%를 거들어 드리자. 2% 모자라 못하게 되었다고 100% 대신 해 드리지 말자. 2%만 거들어 드려서 100% 그분의 삶이 되도록 하자. 살아 있는 한 끝까지 그분의 삶이도록. 2006. 7. 17

※ 2000년대 초, 서울의 모 대학이 운영하는 어느 복지관은 독거노인과 노부부 세대로 ‘은빛 봉사대’라는 자조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시고 밑반찬도 만들어 나눠 드시게 도왔습니다.

5) 반찬 사업 옛글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방식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입과 몸을 기를 뿐 인격과 관계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반찬 사업은 빛나는데 정작 중요한 당사자의 삶이나 이웃 간의 사람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쪽은 천사같이 보이는데 받는 쪽은 구차해 보입니다. 주는 쪽의 명예와 받는 쪽의 불명예가 비례합니다. 사업자와 봉사자가 주연·조연으로 활약하고 이웃이 가끔 엑스트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주연·조연을 빛내 주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복지기관이나 봉사단체 등 조직의 사업으로 반찬을 배달하면 빈 점시 돌려줍니다. 처음 몇 번은 혹 사탕이라도 쥐어 주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배달하는 사람이 바빠서 대화는커녕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아오는 건 빈 점시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빈 점시만 돌아올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평생 익숙하게 해 오신 반찬 솜씨, 반찬에 대한 선택·통제, 어른의 체면·자존심·염치 그 ‘인격’을 반찬값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관계’도 반찬값으로 내어놓습니다. 반찬 나눠 먹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좋은 것 아니라도, 맛이나 영양은 어떨지 몰라도, 좀 어설피고 부족해도, 그래도 가끔 반찬을 가져오거나 만들어 놓고 가던 이웃·가족·친지의 걸음이 줄어듭니다. 걱정해 주고 살펴봐 주고 반찬이라도 챙겨 주던 정, 그 관계가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반찬 하나로 인격·관계 얼마나 상하겠는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당사자의 인격과 관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인간관이 무서운 겁니다. 반찬 사업만 보면 작은 일인지 모르나 매사에 이런 식으로 돕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반찬 만드는 데 같이할 사람, 반찬 나눠 먹을 사람, 이런 사람 관계를 우선하는 게 반찬 사업의 핵심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 관계를 주선해주면 이 관계 속에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함께하거나 도우며 사는 정이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반찬뿐만 아닙니다. 과일을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추를 한 판 사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과 식기를 빌리거나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과, 식사, 장보기, 목욕, 이·미용, 나들이, 산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봐 주거나 택배를 받아 주거나 옷을 수선해 주거나 이런저런 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돕거나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사람 사는 것이지요. 이런 이웃 관계와 인정, 이것이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입니다. 이런 관계와 인정이야말로 어르신을 돕는 근본 토대요 향산적 바탕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을 살려 도우면 반찬뿐 아니라 다른 필요도 해결할 수 있는 향산이 됩니다.

※

충남의 어느 시민단체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998년 본회에서 ‘지역의 무의탁노인’ 900여 세대의 실태조사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한 밑반찬 나눔 프로그램이 현재 저소득 결식아동 14가정, 독거노인 37가정, 장애인 10가정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2회 진행된다.

그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할 운영주체를 찾고,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 2000년부터 OO교회(OO면)에서 30가정, 2002년부터는 OO교회(OO동)에서 7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OO교회(OO동)에서 26가정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관들이 하던 방식보다 나아 보입니다. 다만 교회를 활용했기 때문에 조직의 속성상 자칫 봉사나 사랑이라는 이름 곧 복지사업으로 드러나 보이게 돕기 쉽고 어르신은 불쌍한 사람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13. 김장 사업

저마다 배추 한두 포기, 무 한두 개, 양파 몇 개, 생강 마늘 고춧가루 조금, 소쿠리, 도마와 칼, 큰 대야 따위를 가져와서 함께 김장합니다.

할아버지 어른 노릇, 할머니 혼수, 아주머니 솜씨, 아저씨 힘, 오가는 정답과 웃음, 아이들 소리…

저마다 조금씩 보태고 거들어서 잔치처럼 김장합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밥에 막 담근 김치 얹어 먹으니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동네 김장’ 한다 하니 누군가 돼지고기 삶고 전 부치고 막 걸리나 떡 따위를 내놓습니다. 흥겨운 잔치 한 판 벌여줍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했고 앞집 할머니가 저렇게 했다… 신나고 기가 삽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집 저 집, 사람 사이에 관계가 살아나고 인정이 흐릅니다.

이 동네 저 골목 마을 곳곳에서 당사자와 돌래 사람이, 가까운 이웃끼리, 삼삼오오 이렇게 김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나 복지관 마당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김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재료나 비용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감당하게 함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도와줄 곳을 찾되 되도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게 돕습니다.

1) 한 포기 더

2003년 대구 서북지관 박 선생은 후원금 모아 김치 구입하거나 봉사자 모아 김장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며 김장할 때 한두 포기 더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김치를 어르신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식구 먹이려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은 김치라 맛있고,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것이니 부담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후원금 모으느라 고생할 필요 없고,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른 일에도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2) 관계 중심 나눔

2004년 서울의 서북지관 김 선생은 김장한 이웃이 직접 드리거나 함께 김장하게 주선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웃이 김장할 때 조금 더 해서 나누게 하려는데 괜찮은지, 그 이웃이 직접 갖다 드려도 될지, 복지관을 통해서 드리는 편이 좋을지, 이웃과 함께 김장하시는 건 어떤지... 여쭙고 의논했습니다.

김치를 나누겠다는 이웃을 모집했습니다. 동네에 이런 어르신이 있는데, 김장할 때 한두 포기 더 해서 직접 갖다 드리는 건 어떤지, 그 어르신 모셔서 함께 김장하고 밥하고 고기 삶아 함께 드시는 건 어떤지...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웃은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 김장했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삶은 고기와 김치 얹어 함께 식사했습니다.

부탁한 김치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덩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장을 기회로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3) 사회사업가 정체성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서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사업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사업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① 사회사업가는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사거나 나눠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김장하거나 나눠 드시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② 사람과 자원을 끌어 모아서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 집어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풀어내어 그들의 것으로 소통시키는 사람입니다.

③ 김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게 하는 사람이고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관계 ‘사회적 지지망’을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융통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김치 뿐 아니라 반찬 양념 과일 잼 그릇 등을 서로 나눠주거나 융통하고, 다과 식사 뜨개질 의류수선 세탁 청소 장보기 목욕 아·미용 나들이 아이보기 산책 등의 활동을 함께 하거나 도와주는 이웃 관계를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김장 김치 하나를 보고 임기응변하기보다 김장 김치를 구실로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항산적 바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체계 간 공유영역인 당사자와 이웃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김장 김치를 구실로 개입하여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눠 주고 융통하고 함께하고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도록 공작하는 사람입니다.

④ 김장 김치 사업을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 영역의 일로 만들지 않고 보통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⑤ 공동체성이 꺼져 간다고 그것을 덮어 버리고 복지관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꺼져 가는 공동체성을 돋우고 인정과 나눔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도록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가는

특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 사이에 두루 있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게, 또는 보통 사람들이 음식 나눠 먹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방식이 되게 합니다. 바탕을 기릅니다. 즉 인격과 강점과 관계를 기르고, 그 관계 속에서 인정과 나눔이 자연스러운 살림살이로 소통되는 복지생태를 만들어 갑니다.

북복지관의 ‘한 포기 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김장김치 지원 사업’과 북복지관의 ‘2004년 김장김치 품앗이 사업’에서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공작, 그들, ~등, 즉, 향산적, 생태적, 체계,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개입, 소통되도록, 보통 사람... 이 글을 쓴 당시 용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14. 경로식당

복지관 경로식당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의 점심 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시설입니다.

어르신 점심 사회사업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점심 복지를 이루는 데 어르신이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게,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어르신과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1) 어르신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식당 운영과 이용 규칙 정하기, 식단 짜기, 재료 구입,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식권 배부와 안내, 질서 유지, 문서 작업 따위에 함께하게 합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날짜 시간 비용 업무를 분담하여 당신들의 점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이런저런 단체 회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여, 저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날짜 시간 비용 업무를 분담하여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나아가 어르신 맥의 주방 환경 개선, 노인용 취사·식사 도구 지원, 밥상 공동체 따위의 자조집단, 둘레 사람이 종종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거나 어르신 식사를 돕는 밥상 이웃을 생각합니다. 어르신 맥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점심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이 삽니다. 지역사회가 노인도 살 만하고 노인과 더불어 사는 곳이게 됩니다. 점심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여 어르신이 당당하고 지역사회가 빛납니다. 지역사회에 어르신 복지가 두루 스미어 흐르게 되고,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삽니다.

경로식당 옛글

경로식당이든 점심 사업이든 복지관 사회사업가는 복지관 정체성과 사회사업가 정체성에 어울리게 합니다.

1) 복지관의 시설 정체성

복지관 경로식당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의 점심 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시설,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이용 주체인 시설입니다.

기관이 어르신에게 점심 복지를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시설, 기관이 이용 주체인 시설? 이렇게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무료급식소 내지 저가 식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여느 요식업소들과 경쟁하는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점심 복지를 이루어 주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점심 복지를 이루는 곳에게 함이 좋겠습니다.

2) 복지관의 조직 정체성

복지관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 점심 복지 지원 기관입니다. 점심 복지 전달체계나 점심 복지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3) 사회사업가 정체성

사회사업가는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4) 점심 사회사업

점심 사회사업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점심 복지를 이루는 데 어르신이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게,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어르신과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기왕에 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으니 그 경로식당을 구실로 복지관의 정체성에 맞게,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맞게 점심 사회사업을 해 봅시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점심복지를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용주체로서 점심복지를 이루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겁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께서 식당 운영 및 이용 규칙, 역할, 의무와 권리 등을 정하시고, 식단을 짜시고, 식 재료를 구입하시고, 주방과 홀과 입구에서 봉사하시고, 이런저런 시비와 요구와 불만과 난제를 다루시고, 행정상 애로사항도 어르신들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거들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동네에 두루 다니며 도와주실 만한 분들을 찾아 의논하고 부탁하고 거들어서 그 분들께서 복지관 공간+예산을 활용하여 동네 어르신들의 점심복지를 이루시게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함께하실 분들로 하여금 시간·역할·비용을 나누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시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당사자를 어르신답게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공동체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사회의 공생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점심복지도 당사자의 삶이 되고 사회의 사람살이가 됩니다.

이것이 복지관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일이요,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사회사업 개념에 일치하고 사회사업 가치·이상·철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점심 사회사업입니다. 2009.12.10

15.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교실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4년 복지요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서울의 모 대학이 운영하는 어느 복지관은 ‘한올타리 학교’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 가운데서 교사를 양성하고 주민 교사들을 중심으로 방과 후 보육을 합니다. 대학생 봉사자가 지역 주민 교사를 보조하면서 음악 미술 체육 따위의 특기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2) 충남의 어느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에서 공간과 사람과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가 운영하게 돕습니다.

햇살가득파랑새학교는 동사무소 공간을 빌려 직접 운영하고, 중앙파랑새학교와 그룹홈은 OO교회 공간에서 그 교회가 운영하고, 서로사랑방과후교실은 OO교회 공간에서 그 교회가 운영하고, 낮은올타리 방과후교실은 OOJC회관에서 남서울대 동아리(지금은 주민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열린문화교실(장애아동통합교실)은 OO교회 공간에서 그 교회가 운영하고, 광덕푸른방과후교실은 광덕면복지회관에서 OO교회와 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시민단체는 지역사회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게 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만들었고(이 조직도 나중에 독립시켰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방식을 인큐베이팅이라 했습니다.) 여름 겨울에 연합캠프를 주선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이들 여섯 개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합니다. 정서 상담 활동, 수련회, 나들이, 목욕 지원, 컴퓨터 교육, 견학, 어린이날 행사, 각 방과 후 교실의 실무자 교육 같은 일로 지원합니다.

16. 생일잔치

한 해 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접 감사하게 돕습니다. 돌레 사람들에게 축하 축복을 받으며 돌레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대접 감사 축하 축복할 돌레 사람을 찾아 정겹게 어울리게 돕습니다. 생일잔치 때와 곳, 손님 초대, 음식이나 선물에 대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돌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생일잔치 잘하게 주선합니다.

17. 장애인복지사업

1) 건강 지원

1990년대 초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운동, 재활 운동을 해 보았거나 관심 있는 당사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은 어떨까요? 가정용 물리치료나 재활 운동 기구도 있으니 같은 기구로 운동하는 동호회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장애인이나 노인이 당사자들끼리 또는 그 둘레 사람과 함께 꾸준히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추천하고 거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근린공원 뒷산 천변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근처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운동하러 오시는 길에 가끔 함께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순회재활 서비스나 가정 방문 간호·치료는 CBR이라기보다 시설서비스의 출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CBR 훈련 지침서는 특별한 물리치료 기구 없이도 집과 마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여 적절한 운동 매뉴얼을 갖다 주고, 며칠 후에 점검표에 따라 점검해 오게 하고 다음 단계의 운동 매뉴얼을 보내 주는 식입니다.

※ 물리치료실 공간 활용 방안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노인 혹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클럽, 자조집단, 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지원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없는 시간에도 치료실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퇴근 후에 가족의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싶은 직장인도 있을 텐데 야간에 복지관 운동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게 도울 수 없을까요?

복지관의 직원으로서 물리치료사는, 치료업무에는 근무시간의 70%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 30%를 비워 두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의료재활 관련홍보계몽이나, 협력기관·주민조직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의 조정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즉, 복지관에 치료사들을 꼭 두어야 한다면 그들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치료실에서 치료만 할 거라면 복지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복지관에 계약 입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수감 책임, 인사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문서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조직이 단순해집니다. 물리치료사가 복지관에서 직접 치료하면 소수의 대상자를 잠시 도울 뿐입니다.

지역사회의 물리치료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복지관 물리치료실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 자기 집과 동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없을까요?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개방 운동실’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체력 단련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물리치료사가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

2) 장애 아동 조기교육

1990년쯤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방식은 여러 명의 특수교사와 치료사, 많은 교실과 치료실, 비싼 교구와 장비, 이렇게 많은 인력 공간 예산을 투입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사회통합에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중개 서비스나 보편적 서비스 방식으로 하면, 특수교사 한 명과 사회사업가 한 명, 그리고 방 하나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조기교육 기관 곧 유치원, 어린이집,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원, 놀이방에 제안하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교육청 구청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갑니다.

방 하나는 교구 교안 교재 전문서적 따위를 공유하는 공간, 부모 모임 교사 모임이나 세미나 상담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장애 아동을 복지관 조기교육 서비스 이용자로 모집하여 지원하고 조기교육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각기 집 근처 협력 기관에 다니면서 종종 복지관의 상담 치료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장애 아동이 집 근처에서, 복지관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조기교육 기관의 장애 아동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여 여력이 생기면 일반학교 장애 학생 지원 사업, 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입원 중인 장애 아동 지원사업도 해 볼 만합니다.

3) 교통, 체육, 목욕, 관광, 독서

1990년대 이야기라서 지금 실정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과 철학과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교통

비장애인은 집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택시를 탈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장애인은 왜 그렇게 못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해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나 외출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교통서비스의 핵심일까요?

(콜택시나 외출도우미 서비스, 이것을 봉사단체나 공무원이 추진한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장애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관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력해야 할 서비스가 이런 것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회복지사라면, 지역 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자가운전자들에게 개입할 방법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때로는 동네 횡단보도나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겠지요. 지하철공사나 운전 교육장도 찾아가겠지요. 편의시설 운동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겠지요.

교통장애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사람과 교통 환경간의 부적응이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교통 서비스란 장애인과 교통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응대하는 방법이 바뀔 겁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② 생활체육

사회복지사라면 생활체육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게 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둡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소재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온갖 체육동호회를 찾아다니고 운동시설을 찾아다닐 겁니다. 체육학과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고, 사회체육 관련 단체들을 접촉할 겁니다.

체육장애란 운동하려는 사람과 체육 환경간의 부적응을 의미하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체육 복지란 장애인과 체육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축구회는 매일 아침 축구를 합니다. 1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적장애인과 함께 축구를 해 보도록 주선하는 건 어떨까요? 동네에 조기 축구회가 여러 개 있으니 돌아가면서 하면 매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생활체육단체와 협력하거나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지도자로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요?

탁구대가 10개 이상인 대형 탁구장에 시각장애인용 탁구대를 하나 설치하도록 주선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말 서울 시내 생활체육 동호회 명부가 전화번호부만큼이나 두툼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호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우리도 무슨 좋은 일 좀 해 보자’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으로써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만 형성된다면 그 체육활동 뿐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끼리 오가며 교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 생활체육 동호회, 동네 이웃, 그 관계와 소통을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일, 이것이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469](#)번 글 ‘재활사회체육운동’ | [PDF](#) 파일

③ 수영

비장애인은 동네 수영장에 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은 왜 OO회관이나 OO체육센터의 수영장까지 가야 합니까? 이와 같이 특수 시설과 특수 서비스 위주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재가장애인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보통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점에서는 좀 더 넓은 수용시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울타리 안에 생활관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시설 입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입주자용입니다.

재가 장애인이 자기 집에 살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고, 장애인 전용 물리치료 시설에 가고, 점자 도서관 이용하고, 장애인 수영장에 가고, 장애인 학교에 가고, 장애인 캠프에 가고, 장애인 교회에 가고, 장애인 관광에 간다면, 말이 재가 장애인이지 실은 울타리가 넓은 시설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④ 장애인 축제

지역사회 일반 축제를 장애인도 누릴 수 있게 주최 측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합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면, 그 시간에 장애인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설하게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지역 축제에 대해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더러는 지역 축제의 기획 준비 진행 과정에 참여하게 추천합니다.

장애인 축제가 따로 필요한 일이나 사람도 있고, 장애인 축제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함도 좋지만, 장애인이 지역의 일반 축제에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하고 누리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⑤ 목욕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동네 목욕탕을 정신·신체 약자나 노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둘레 사람 목욕하러 가는 길에 가끔 함께 가게 주선할 수 없을까요?

집에서도 목욕할 수 있게 욕실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목욕 보조 도구나 용품을 지원할 수 없을까요? 시공 업체나 상품 정보만이라도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목욕탕은 이제 거의 없으니 논외로 하고, 이동목욕차량은 어떻습니까? 목욕 봉사자나 활동보조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이 그려집니까? 대상자의 품격이나 자존심은 어떻겠습니까? 여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저 가난할 뿐이라면, 이용권이나 이용료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조심할 일입니다.)

⑥ 관광

사회복지사의 관심은 대중교통, 관광버스 회사, 여행사, 철도, 불국사나 민속촌, 고궁, 박물관 등의 관광 자원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자원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관광장애란 관광하고 싶은 사람과 관광 환경간의 부적응이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관광 복지란 장애인과 관광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여행할 사람, 장애인이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따로 모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아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사람을 주선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웃에서, 상관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선해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⑦ 독서

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만들고 봉사자를 모집하여 점자책과 녹음도서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를 가르쳐준다?

이는 책을 읽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시각장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보다는, 특별하게 서비스하는 복지관에 의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복지사 아닌 일반 봉사자나 공무원이 이렇게 점자도서관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어울리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시각장애인 열람실을 만들고 그 지역주민 가운데 봉사자를 모집하여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대응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쳐주고 보통 시민들처럼, 시민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

시각장애인과 독서 환경, 둘 다 보면서 양 체계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개선하려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출판사 혹은 대형서점으로 하여금 주요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로 출판하도록 요청하고,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시각장애인은 왜 극소수 특정 복지기관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종로 도서관처럼 시각장애인 열람실도 있고 요청만 하면 점역이나 녹음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1. 아이들이 사는 마을

학교 마치고 센터로, 센터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하고 센터에서 놀고 센터에서 저녁 먹고...

안타깝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마을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 어른 어울려 사람 사는 것같이 사는 지역사회, 식구가 함께 먹고 이웃 아이와도 함께 먹는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이런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관계와 소통, 정겨운 사람살이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주체로 세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돌레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린, 그들의 삶이었고 사람살이였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두루 상관하면서 복지 바탕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을 살렸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렸으니 이것이 바탕을 길렀다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는 사회생태, 이런 복지생태를 바라고 씨를 뿌렸습니다. 혹 뿌리를 내리고 혹 싹이 나고 혹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지생태 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2006. 3. 2 광활 섬활 합동 수료식을 마치고 쓴 글입니다.

2. 문제를 따돌리기

왕따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벽이 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산만하여 학습이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암담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담 치료 프로그램 따위로 건드리면 자칫 자존심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로 보거나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꺼렸습니다.

적극적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변화와 선행에도 잘했다 고맙다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 참여 성취하는 경험, 함께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는 경험,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경험, 인정 존중받는 경험, 칭찬 감사 격려받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는 문제를 희석시켜 버릴 만한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과의 관계,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를 살렸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막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왕따 문제 도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 알게 되니 친구를 괴롭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 나쁜 짓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나은 재미와 감동과 행복을 맛보니 남을 괴롭히거나 흠치는 것이 시시해졌을 겁니다.

산만하던 아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의논하니 조심하려 했을 겁니다. 아이의 강점 가능성을 찾아 잘할 만한 일 좋은 일로써 부탁하니 활력이 그쪽으로 쓰였을 겁니다.

암담한 가정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 자주한 경험, 인격적 경험... 이것이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원문 : 섬 사회사업 게시판 [2704](#)번 글

“어느 날 엄마의 씌지에서 일 전짜리 한 닢 꺼내어 눈깔사탕을 사 먹었다. 그렇게 매일 한 푼 두 푼 꺼내 썼다. 잘못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앞쪽에 있는 유리를 손으로 짚고 안쪽에 있는 상자 뚜껑을 열려다가 그만 유리를 깨트리고 말았다.

그 날 저녁 가갯집 식구들이 몰려와 변상을 요구하다 엄마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나는 그동안에 다음에 시킬 거짓말을 준비했다. 엄마는 의당 돈이 어디서 나서 군것질을 했느냐고 물을 테고, 그러면 길에서 주웠다고 대답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나에게 군것질한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엄마가 만일 그때 나를 의심하고 따지고 들었으면 어떡하든지 진상을 규명했을 테고 그때 내가 맞볼 수밖에 없었을 수치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나는 그 후 다시는 엄마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길에 떨어진 돈도 주운 적이 없다. 만약 그때 엄마가 내 도벽을 알아내어 유난히 민감한 내 수치심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견잡을 수 없이 못된 애가 되었을 것이다.”

박완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씽크빅, 3판 5쇄, 98~105쪽에서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 가운데 한 대목을 요약했습니다.

3. 학습지도

1) 경쟁을 돕는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동 학습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다른 아동은 어찌 할까요?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입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2) 학습지도도 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아동을 만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학습은 아동의 실제 생활 과업입니다. 이리므로 학습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하되,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사회사업가답게 합니다.

동네에서 학년 구분 없이 몇 명씩 짝지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공부하게 도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필요와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워 준비했고 형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간식을 주시기도 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했고 둘레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이라는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정겨운 사람살이가 생동했습니다.

4. 인력 부족?

당사자와 지역사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저마다 전공 지식 경험 취미 직업을 살려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개인이나 조직도 많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그렇게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면 됩니다. 모아서 소개하되 설명회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설명회를 계획 준비하고 진행하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합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5. 후원 봉사, 실습

1) 센터 아이들은 너무 자주 특별한 후원 봉사를 받습니다. 흔히 소외된 이웃,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낙인찍혀서 받습니다. 꺼림칙합니다. 구차히 받으려 하지 않을까, 품격을 잃어 가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무디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후원이나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아이들과 의논합니다. 후원 봉사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받는 데 익숙해 지지 않게 합니다.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게 합니다.

외부 자원이 필요하면 위원회 같은 아동 조직이 찾아 유치하거나 검토하여 받게 합니다. 센터 아이들이 일방적 시혜 대상이 되지 않게,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2) 실습 (단기사회사업)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일에, 아이들이 주인 노릇 하게 합니다.

아동 당사자 면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면접위원들이 면접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 보고 궁리하고 의논하여 면접을 준비합니다. 미리 지원자 한 명 한 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읽고 밑줄치고 메모하고 질문지를 만듭니다.

면접실과 자료와 대접할 음료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마중하고 안내합니다. 지원하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 인사합니다. 정성껏 대접합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진지하게 면접합니다. 지역사회를 두루 안내하고 아동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알게 돕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 철암 [사례](#)

6. 학교사회사업

1) 기관과 시설

학생복지 지원 기관과 이용 시설의 결합체로서, 학교에 딸린 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관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준용합니다.

2) 학교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여느 복지관처럼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을 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3) 학교사회사업가

학교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더하여, 복지 과목의 선생 같은 노릇도 하면 좋겠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 문헌을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하고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또는 관련 기관에 물어 보는 등 두루 알아보게 돕습니다.

서로 의논하여 계획 준비 실행하게,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이런 경험을 쌓게, 돕습니다.

② 더불어 사는 법, 약자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학교 행사 또는 학생들끼리의 모임이나 활동에 약자도 동등하게 참여 기여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이런저런 기회를 살리고 구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수 있게 합니다.

7.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박경희 선생님, 김동찬 선생님, 전효민 선생님, 최선웅 선생님, 이준화 선생님의 사회사업 기록에서 아동 청소년 활동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모두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었습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494번](#) 글 '프로그램 사례집'

1) 평생학습(사회교육), 취미활동

문학, 노래, 악기, 춤, 운동, 요리, 등산, 사진, 공예, 철학, 예의·매너, 사교... 자료를 찾고 둘레 사람에게 물으며 스스로 배우거나 동네 어른을 선생님이로 모십니다. 어른들이 전공 직업 취미를 살려 이런저런 활동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모집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나누는 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합니다.

2) 설명회와 수료식

방학 활동도 학기 중 활동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을 초대하여 설명회로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제안하고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이나 사회사업가가 제안합니다.

수료식 겸 발표회로 마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활동을 발표하고 배움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발표회 겸 수료식은 언제나 정겹고 신나는 마을 잔치입니다.

3) 야영, 캠핑 : 숲 속, 호숫가, 강가, 계곡, 캠핑장...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텐트를 치고 화장실을 만들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장비와 도구를 조달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는 일도 아동과 지역사회가 나누어 맡습니다. 야영에 온 마을 어른 아이 선후배 형 동생이 어울립니다.

4) 여행, 순례

도보순례, 자전거 여행, 트레킹, 졸업여행, 지역탐방 순례, 진로 찾기 여행, 문학 여행, 역사 여행, 타 지역·기관·모임과의 교류 방문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교통 식사 간식 숙소 사진 기록 회계 따위의 과업을 분담합니다. 여비는 둘레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격려 글과 함께 격려금을 받아 마련합니다. 용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5) 하룻밤

복지관, 도서관, 펜션, 온천, 리조트, 친구 집, 할머니 댁에서... 몇 곳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또는 한데 모두 모여, 하룻밤 실컷 놀입니다. 아동 기획단이 장소 섭외, 프로그램, 식사, 숙소 따위의 과업을 나누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방학 활동이면 두어 번 해도 좋겠습니다.

6) 식사파티문화학교

한식 양식 중식... 식사 예절과 요리법을 공부하고 소책자를 만듭니다. 책을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이나 요리사들께 여쭙 봅니다. 잘한다는 데 가서 먹어 봅니다. 활동 발표와 수료회를 겸하여 파티를 엽니다. 둘레 사람을 초대합니다. 직접 요리하고 차리고 시중합니다.

7) 길 위의 학교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에 여쭙고 자료를 구합니다. 책을 찾아봅니다. 둘레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자료를 모아 검토하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분담합니다. 둘레 사람에게 격려 글 받으며 여행 경비를 마련합니다.

덕망 있는 어른, 문인, 예술가, 이런저런 직업인들을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지리와 사람과 문화를 알아 갑니다. 자연을 소박하게 누립니다. 다녀와서 전화와 편지로 감사합니다.

8) 책 한 권씩 들고 가족 이웃과 떠나는 독서 휴가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씩 들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갑니다. 산책하고 놀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책 읽고, 둘러 앉아 좋은 문장 낭송하고,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 나눕니다.

9) 책 읽는 모임

주제나 책을 지정하여 읽고 와서 나누는 모임, 모여서 읽고 나누는 모임, 낭독하는 모임... 관련 장소나 사람을 찾아 여행하기도 합니다.

10) 독서캠프

몇 가지 주제나 책을 정하여 각자 책을 읽고 와서 주제별 또는 책별로 모듬을 지어 나눕니다.

살아 있는 책, 사람을 읽습니다.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 후 짝을 정하여 상대 이야기를 읽고 자기 이야기를 읽어 줍니다. 각자 1년이나 몇 년 후 또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고 싶은 자기 책을 기획하고 꾸며 봅니다. 그때가 되어 출판했다고 가정하고 가상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11) 저자와의 대화

저자를 선정합니다. 그 분의 책들을 읽습니다. 책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이나 놀이 따위의 활동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동식물이나 물건 정보를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쭙 봅니다.

저자를 섭외합니다. 책을 들고 마중 나갑니다. 잘 듣고 잘 묻습니다.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금함을 만들어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냅니다. 와 닿은 점, 재미있거나 유익했던 점, 배운 점, 고마운 점을 나눕니다. 엽서나 편지에 써서 드립니다. 배웁니다.

12) 동요 대회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동요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을 정자나 숲이나 공원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달빛 별빛 아래, 피리 하모니카 불고 기타 바이올린 켜며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른 아이 동요 모임에서 기획 준비 진행하는 동요 대회, 동네 사람들이 소박하게 상품을 내놓고 등수 구분 없이 고루 나눕니다. 먹을 것 조금씩 가져와서 나눕니다. 동요 부르는 사람들은 순후할 겁니다.

13) 문장 낭송 대회, 동화 구연 대회

시 수필 실록 소설 동화 기행문 일기 수기 칼럼... 주제 또는 재료를 지정하거나 각자 선택하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출연자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들으며 맞장구치고 추임새 넣고 느낌 생각 나눕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듣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평상이나 난롯가에 둘러앉으면 절로 이야기꽃이 필니다. 백과사전 국어사전 도감 지도 따위의 관련 문헌을 찾아보거나 토론 연극 실습 여행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글 읽는 동네, 동화 익는 마을...

14) 요리

만두 쿠키 케이크 샌드위치 군고구마, 삼계탕 비빔밥 김밥 죽 수제비 냉면 라면 떡볶이 국수 화채, 온갖 간식, 온갖 떡, 유자차 매실차 생강차 모과차 효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나눕니다.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이고 돌 달구어 고기 구워 먹습니다. 어디 가마솥 하나 걸면 정겨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5) 베품시장, 알뜰시장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러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에게 배웁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섭외합니다.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동네잔치처럼 진행합니다. 뒷정리와 감사 인사 잘합니다.

16) 일상생활기술학교

취사 세탁 청소 설거지 바느질 못질 톱질, 아기 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화초 가꾸기, 텃밭 농사, 얼룩 지우기, 끈이나 줄을 묶는 요령, 만들기 고치기... 생활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어 봅니다. 이집 저집에서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렇게 찾고 배운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잘 정리해서 나눕니다.

17) 마을 극장, 우리 집 극장

마을의 너른 마당이나 정자나 강당에서, 이웃집 거실에서,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영화 봅니다. 영화, 초대장 포스터, 스크린, 장비, 장소, 돗자리, 간식... 아동과 지역사회가 의논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18) 클래식 활동, 인문학 공부

문헌을 찾아봅니다. 클래식 좋아하거나 클래식 활동을 하시는 분, 좋은 음향기기 가진 분, 알아보고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한 학기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활동합니다. 함께 감상하고 그 분의 클래식 음악과 추억과 삶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공부도 이렇게 합니다.

19) 생활체육, 보드게임

놀고자 한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 같은 생활체육과 윗놀이 바둑 오목 장기 고누 오델로 체스 같은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어른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20) 개별 상담, 일대일 데이트

상담 공간을 꾸미고 그 아동을 위한 특별한 요리나 간식을 준비합니다. 활동 기록과 장점과 고마운 일을 정리합니다. 칭찬 감사와 장점 가능성 희망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21) 문화 관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공연·전시장에 갑니다. 표는 각자 사거나 돈을 모아 공동구매합니다. 이웃이 표 값을 내 주거나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차를 함께 타고 갑니다. 삼삼오오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합니다. 각자 표를 내고 자유롭게 관람합니다.

22) 소풍, 나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갑니다. 집마다 도시락과 간식, 돛자리 따위를 준비합니다. 이웃이 좀 더 싸 오기도 합니다. 멀리 갈 때는 차비를 견여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합니다.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이웃이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가서 삼삼오오 자유롭게 누립니다. 도시락·간식을 펼쳐 놓으면 잔치 같습니다. 서로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 웃음꽃 피어납니다.

23) 크리스마스

모여서 카드를 만듭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하 카드를 씁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소박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쌀을 모아 떡해서 성탄 축하 선물로 삼기도 합니다.

루돌프 옷과 뿔, 천사 옷을 만듭니다. 산타복은 구입하거나 만듭니다. 유모차와 개? 썰매? 선물 수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고 어른들께 여쭙어서 장식 소품 만드는 법, 종이접기나 풍선아트 따위로 장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집을 장식합니다. 동네 가게 같은 곳에 두루 다니며 캐럴을 틀고 성탄 장식을 하게 부탁하거나 함께합니다.

동네마다 몇 명씩 짝지어 산타 루돌프 천사가 되어 자기 집 친구 집 동네 어르신 댁을 돌며 캐럴 부르고 안아 드리고 카드와 선물을 드립니다. 길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안아 드립니다.

24) 송구영신

12월 31일 낮에 어른들과 만두소를 만들고 저녁에 모여 만두를 빚고 찌고 나눠 먹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드리거나 둘러 앉아 실리 평가 감사 평가! 아름다운 추억, 고마운 일, 잘한 일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잘했다 고맙다 인사합니다.

구역을 나누고 몇 명씩 짝지어 마을 인사 다닙니다. 다녀와서 새해 바람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축복해 줍니다.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합니다. 다음 송구영신 행사 때 꺼내어 읽고 나눕니다.

제야의 타종식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일출을 보러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와 함께 떡국을 먹습니다.

25) 마을 세배

어른들께 여쭙고 책을 보고 세배 풍속을 공부합니다. 의논하여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인사드릴 어른들을 섭외합니다. 어른들은 덕담을 생각하고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한복 입고 동네 골목 노인정 이 집 저집 세배하러 다닙니다. 안아 드리고 안아 주며 서로 축복합니다.

26) 정월 대보름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고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이웃 가족 친구와 부럼을 깨 먹습니다. 오희밥 짓기, 나물밥 얻어먹기... 달맞이 줄다리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와 이런저런 새로운 놀이로 남녀노소 어울려 놀입니다.

27) 생활복지운동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골목에서 숲에서 흙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 아동 기획단이 놀 곳을 확보합니다. 놀잇감을 찾아보거나 만듭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궁리하고 의논합니다. 동네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8. 방학 활동

1)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방학 활동 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게 합니다.

방학 활동을 기획 준비 실행하는 데 당사자인 아이들과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주인 노릇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돕습니다.

아이들이 의논하게 합니다. 자료나 정보를 얼마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아이들 나름대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주선합니다.

지역사회 조직들도 각각 자신들의 일을 소재로 아이들을 만나게,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활동을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드립니다.

외부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밖에서 다 준비해 와서 베풀어 주거나 대신 해 주지 않게 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심사회사업 게시판 [853](#)번 글

2) 방학 활동 기록

아이가 참여한 활동, 그 과정에서 만든 문서나 작품, 자기소개서, 활동 계획서, 모집 안내문, 신청서, 활동 기록, 감사 기록, 발표회나 평가회 자료, 편지, 사진, 수료증을 모으면 보통 한 학기에 파일 한 권은 됩니다. 방학 활동만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의논하여, 학교에 한 부 보내고 센터에 한 부 보관하고, 원본은 아이에게 줍니다.

시설 사회사업

1. 복지관과 시설

1) 구성

복지관 : 이용시설 + 사회사업 기관

시설(Institution) ; 주거 시설(Residential Facilities) + 사회사업 기관

2) 지원 대상

복지관은 주로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을 지원하고 시설은 시설 주택 입주자를 전담 지원합니다.

3) 지원 시간과 지원 과업

복지관은 주로 낮에 특정 복지를 이루는 일을 지원하고, 시설은 밤낮없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 방법

복지관이나 시설이나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5) 지역사회 복지기관 여부

입주자가 사회의 일반 수단으로써 여느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다면,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면, 시설도 지역사회 복지기관입니다.

복지관이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준다면,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면, 그런 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 시설 정체성을 뒤집어 보기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1) 입주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지 대행업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설 기관이 대행업체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이,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2) 지역사회로부터 후원 봉사 따위를 받아서 입주자에게 전해 주는 전달체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달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달자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3) 보호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호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를 두고 보호를 운운하는 것, 보호가 필요한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시설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시설 입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시설 사회사업에, 이보다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3. 시설 용어

1) 거주자?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가 시설 외의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이용자?

① 집을 이용하는 사람? 호응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입주한 당사자의 집인데, 숙박 시설의 손님 같아 보입니다.

②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도움이 좋은데...

시설 이용자라고 하면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기 쉽겠고, 외인들도 으레 그런 줄로 생각하고 일반 수단에서 외면 배제하려 들지 모릅니다.

3) 시설과 재가?

시설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집입니다.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하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입주자의 집입니다. 시설 주택에 있음도 ‘재가’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따위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사회 주택?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시내에 있든 교외에 있든 그 동네 그 마을 그 지역의 어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공간이나 세간을 단독으로 쓰든 함께 쓰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어떤 유형이든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사회에서 산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를 이용하여 생활하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따라서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 또는 '시설에서 산다.'와 '지역사회에서 산다.'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대비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6) 입소 퇴소?

수용소나 보호소 또는 훈련소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주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소한다 하면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따라서 입주, 퇴거라고 하고 이사 온다, 이사 간다고 합니다.

7) 주택 이름과 기관 이름

① 주택 이름

사랑 나눔 은혜 은총 천사...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OO원? 주택 이름으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OO마을, OO동네는 약자 집단 거주지, 계토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이름을 개명하려면 입주자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식 개명이 여의치 않으면 공문서용 이름과 생활용 이름을 달리합니다.

② 기관 이름

OO집, OO빌라... 주택 이름에 가깝습니다. OO원? 직접 서비스 기관의 이름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을 개명한다면 기존 이름으로 쌓아 온 사회적 가치도 고려합니다. 공문서용 이름 외에 약칭이나 별명으로 부르기도 좋겠습니다.

시설 기관은 시설 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지원사무소(지원센터)입니다. 그 조직의 장을 원장이라고 함이 타당할까요?

입주자와 대등하거나 입주자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는 마음, 입주자 앞에 겸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울리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8) 거주시설?

①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고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주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주시설이라 하고 거주자라 하니 이렇게 붙박여 살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를 시설 밖까지 넓혀 다양하게 지원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입주자는 그 시설에 붙박여 살 수밖에 없으니 거주시설이 주거를 제한하는 시설 ‘거주제한시설’ 기능을 하게 되고, 거주가 고정되는 시설 ‘거주고정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시설 주택 곧 시설의 주거 시설뿐 아니라 시설 밖의 다양한 주거 시설을 활용합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항상 시설 주택에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③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인데,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는 ‘지원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흐립니다. 시설에는 주거 시설 외에 업무 시설도 있고 이용 시설도 있는데, 시설이 다 주거 시설인 것처럼 그냥 ‘거주시설’이라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거주시설, 거주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꺼릴 뿐입니다. 주거 시설은 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여부를 가릴 때는 거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9) 보호시설?

① 당사자의 삶이 ‘보호’라는 말에 묻혀 버립니다.

집단 프로그램 따위로 단체 생활 시키며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려 들기 쉽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당연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저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② 보호한다는 사람이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③ 성인이나 노인에 대하여는 보호한다 함이 꺼림칙합니다.

④ 당사자가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따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곳에 있거나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이 떨어지고 구차해집니다.

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사람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하는 것...

당사자에 대한 인식에,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사회사업과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⑥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은 복지사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주간센터라면 이곳 사회사업가는 낮 동안 당사자 개개인,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이런 일에 어울리는 이름은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명이 어렵다면 이런 이름은 공문서에만 쓰고 실체는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 또는 주간센터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10) 기타 용어

- ① 집에 다녀오다 → 미성년자라면 몰라도 성인이라면 예컨대 부모님 댁, 고향집, 본가나 친정에 다녀온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 ② 시설에 오다, OO원에 오다 → OO빌라 301호, 아들 집, 딸 집, 형님 댁, 동생 집, 친구 집, 학생 집, 교인 집에 오다
- ③ 면회 오다 → 보러 오다, 놀러 오다, 심방 오다...
- ④ 생활실 → 주택, 가구, 집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 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사회사업 관계에 어울리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⑥ 원 가정, 원 가족 → 본가, 친정, 부모 형제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 ⑦ 보호자 : 입주자가 환자나 애 같아 보입니다. 부모나 가족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11) 공동체

공동체 생활은 사적 영역의 사적 행위에 가까운데 정부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 수 있을까요?

구성원이 노동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든지 재산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이나 수당이나 기타 수입금을 출연하여 비용을 충당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을 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느 구성원과 다르게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조직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 왔을지라도 공조직으로 전환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면 공동체 생활의 좋은 점은 잘 살리되 또한 공조직으로서 사회사업 기관답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가구 사회사업가

1) 이름

가구를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를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직이라고 해 봅니다.

생활지원팀, 생활팀, 사회사업팀, 일선 사회사업가, 직접 서비스 담당자는 가구직만의 호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비가구직도 저마다 그 고유 업무로써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가구직이 아니어도 사회사업하거나 직접 서비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법과 지침에서는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라고 하는데 입주자를 지도 대상, 교육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꺼림칙합니다.

2) 정체성

어떤 집을 맡아 지원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그룹홈 운영자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OO빌라 302호를 그룹홈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입주자 개개인을 담당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사례관리 사회사업가에 가깝습니다. 입주자들은 여러 집에 분산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전 시설 운영자들은 대개 전공자가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없이 수십 명씩 도왔습니다.

지금 그룹홈 운영자는 대개 전공자이고 집과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있고 모 시설 사무국으로부터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 담당하는 입주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② 다가구 그룹홈은 다인실이 두 개 이상 있어 여러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집입니다.

이 집을 대표하는 사회사업가는 결재나 공식 슈퍼비전 같은 상사 노릇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행정 사무만 더하되, 그 집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3) 근무제

① 근무표 : 입주자의 생활 흐름이 대개 1주 단위로 반복되므로 근무도 1주 단위로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따라 배치합니다.

② 야간근무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일들을 주로 주간에 합니다. 이따라서 야간근무를 줄이고 주간근무를 최대화합니다. 야간근무 횟수를 줄여야 그만큼 낮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

작은 시설에서는 가구 사회사업에 대한 결재를 한 명만 하면 좋겠습니다. 슈퍼비전도 '공식적으로는' 결재자 한 명만 하면 좋겠습니다.

가구직에 팀장을 세우더라도 결재나 공식 슈퍼비전 같은 상사 노릇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행정 사무만 더하여 가구 사회사업가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봉사함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과 성향을 감안해야 하고 시설의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도 헤아려야 하니 쉽지 않았지만, 가구 사회사업가가 입주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5) 가구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모두 가구에 배치합니다.

① 어떤 일에 필요한 전담 인력이 없다고 가구직을 그 일에 배치하기보다 과업팀으로 대신함이 좋습니다. 예컨대 시설관리팀, 자원개발팀, 평가대응팀, 직원연수팀 따위를 직종 직급에 상관없이 구성합니다.

② 국장이 과업팀들과 협력하여 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다만 국장이나 과장급 비가구직이 가구 사회사업에 대한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여력이 생겨 과업팀을 만들 일이 적을 겁니다.

③ 가구 사회사업가가 과장 국장 따위의 행정직을 맡게 된다면 몇 년 봉사하고 본직인 가구 사회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도권 시설에 요구하는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되, 우선은 이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6) 입주자 개인별 전담 직원

① 전담 직원이 없으면 직장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 취미활동, 평생 학습, 여행, 사람 구실 따위의 과업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부탁할까요?

② 당사자나 가족은 어떤 직원이 전담 지원해 주기를 바랄까요?

상위 70%쯤의 직원이 전담하면 어떨까요? 입주자가 30명이고 가구 직이 13명이라면 상위 직원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전담하는 겁니다.

③ 전담 직원은, 담당 입주자의 돌레 사람을 찾거나 만들고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과 전담 실습생을 확보하는 데 힘씁니다.

근무일에는 담당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게는 담당 직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휴무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당일 근무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④ 나머지 직원은 보조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근무일에 전체 입주자의 일상 케어를 위주로 하고, 특정 입주자의 특정 생활 과업은 전담 직원이 준비하여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5.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

지원 기관의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을 원내 주택, 밖에 있는 주택을 원외 주택이라고 약칭하고 설명합니다.

1) 원내 주택에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산만함 도전행동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주택이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원외 주택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내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야간 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활동 지원이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주택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이른바 유닛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도 야간근무 수요 때문에 주간 활동 지원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원내 주택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구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 따로 생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탄살림하게 돕는 겁니다.

4) 원외 주택이 있다면, 직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가 거주하게 합니다. 직원의 일부를 원외 주택에 고정 배치하면 원내 주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외 주택 전담 인력을 따로 지원한다면, 직원이 많아서 몇 명쯤 원내 야간근무에서 빠져도 야간근무가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외 주택 전담 직원을 따로 고정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6. 주거 시설의 관리

1) 기관으로서 시설은 주거 시설의 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사업 관점으로 보면 ‘관리 지원 기관’에 가깝습니다.

가구 시설은 대개 그 가구의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관리하게 돕습니다.

공유 시설은 입주자 총회나 대표자 회의 또는 입주자가 참여하는 시설 관리팀 같은 데서 의논하여 관리하게 돕습니다.

2) 지원 기관 주사무소의 주소지 밖에 주택을 마련할 때

① 그곳으로 이사 갈 입주자가 특정된 경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두루 알아보고 계약하고 살림 장만하고 이사하고 집들이하고 관리하게 돕습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시설 주택도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② 그곳으로 이사 갈 입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체험홈을 마련할 때, 계획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합니다. 입주자가 참여하는 과업팀에서 의논하여 집을 구하고 살림 장만하고 관리하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7. 고도 지원을 위한 영성

1) 성서의 영성

①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임을 생각합니다.(약3:9~10)

그의 상전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는 우리 주님의 형제이고 그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엡6:9, 시68:5, 마25:40)

그 사람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되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습니다.(갈4:14)

② 사람답게 도우려다 잘못될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롬8:28)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벧전2:19~20)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고 합니다.(약1:2~4)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합니다.(시126:5~6, 갈6:9)

③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합니다.(사53:7)

입을 연다면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엡5:3~4)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시119:75, 시145:17) 감사 또 감사합니다.(살전5:16~18, 엡5:20)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합니다.(애3:22~23)

④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강권하시기 바랍니다.(고후5:14)

그 일을 그렇게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바랍니다.(렘20:8~9)

뜻을 좇아 선을 행하다가 눈총 맞고 혼나고 비난받고 애통하고 눈물 날 때,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뜻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갈4:19, 골1:24)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마5:3~12) 그러므로 입주자를 위해 수고하며 애태우며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⑤ 이런 일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히10:23~25)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롬12:2) 믿음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골2:7)

2) 논어의 영성

① 서(恕)

논어의 도는 ‘서’로써 일관합니다.(이인-15, 용야-28, 안연-2)

서는 내 마음으로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 행함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고자 함같이 남을 사람으로 대접함입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자 함같이 남도 사람답게 살게 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도 당하게 하지 않음은 소극적 서입니다. 내가 서고자 함같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잘되고자 함같이 남도 잘되게 함은 적극적 서입니다.

사회사업의 도 또한 서로 일관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도움을 받고자 함같이 남도 사람답게 돕되 성의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서비스는 싫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고 선택 통제하고 싶고 제구실 하고 싶습니다. 주인 노릇 하고 싶습니다. 일방적 서비스 대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 약자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사회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내가 시설에 산다면...

나름대로 내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고 싶습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시설 입주자를 돕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당사자의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② 경(敬)

경은 '삼가 다잡음'입니다.(학이-5)

안으로는 마음을 삼가 다잡음이고, 밖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자세를 삼가 다잡음입니다.

삼가 다잡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받들어 대하고 일을 받들어 행하게 됩니다.

불경은 '삼가 다잡지 않음'입니다. 삼가 다잡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일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논어의 경은 위인의 경입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성의로써 정심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받들어 대하고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경도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의 경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성의정심으로 당사자를 받들어 대함입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걸언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불경은 당사자를 함부로 대함입니다. 걸언하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경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성의정심으로 돕는 일을 받들어 행함입니다. 근본을 좇아 한결같이 정도로 행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불경은 돕는 일을 함부로 함입니다. 근본도 없이, 근본을 버리고, 시세나 명리 또는 기본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다.

요컨대 논어의 영성은 자신이 고도 지원이 필요할 때 어찌해 주기를 바람같이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그렇게 하되, 사람답게 도우려는 성의로써 정심하여 한결같이 받들어 지원하는 겁니다.

8. 복장

1) 복장이나 외모는 개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마냥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본인의 자아상과 행동,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차려입고 잘 단장하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직원도 입주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언행을 삼갑니다. 외국인도 입주자를 귀하게 보고 품위 있게 대합니다.

2) 직원의 복장 품행 언어도 중요합니다. 입주자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입주자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입은 직원이 입주자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 입주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입주자를 대할 때 옷·몸·말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3)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이나 품행이 입주자의 자아상과 행동, 외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입주자가 하는 구실, 입주자에게 기대하는 구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설 입주자의 낮은 인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과 외모를 여느 사람보다 더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실의 격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범하게 하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더 좋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9. SRV와 노말라이제이션

1) SRV : Social Role Valorization

사회적 구실을 가치 있게 하기입니다.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돕는 겁니다.

2) 노말라이제이션

평범하게 하기입니다. 입주자의 의식주, 복장과 단장, 호칭, 인간관계와 사람 구실, 학교생활과 방학활동, 직장생활과 휴가, 취미활동, 집안 일, 개성 추구 따위를 평범하게 합니다. 입주자가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게 돕는 겁니다.

3) SRV와 노말라이제이션의 관계

①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갈수록 더 나은 구실을 하게 합니다. 사회적 구실을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갈수록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사회적 구실을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SRV와 사회적 구실의 노말라이제이션, 그 실체가 같습니다.

다만 노말라이제이션은 사회적 구실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SRV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일부’입니다.

②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 인상을 좋게 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인상이 좋고 역량이 있어야 가치 있는 구실을 기대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합니다. 별나게 하면,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인상이 그런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구실을 요구하기는커녕 기대하지도 않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평범하게 합니다. 노말라이제이션으로써 인상을 좋게 하여 가치 있는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말라이제이션은 SRV의 ‘방법’입니다.

10. 집단 활동

1)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대놓고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집합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2) 수시로 또는 일상적으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면 입주자가 자기 일상을 프로그램에 맞추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 규정 통제 되는 건 아닐까요?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자기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 삶을 꿈꾸거나 원하기는 할까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회 사업가가 입주자의 삶을 개별 지원하려 할까요? 여력이 있을까요?

3) 프로그램이라 하니 그럴싸하지만 실은 단체 생활을 호도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거나 체념하고, 순응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길들여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4)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 점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입주자는 하릴없이 그저 무료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마냥 방임되기도 합니다. 둘레 사람이 없고 개인별 지원 조직도 없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다만 입주자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개별 지원하는 데 주력하면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보완책으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11. 연명과 삶

1) 자기 삶이랄 게 없고 그저 연명할 뿐이라면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연명이라도 도와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움이라도 누군가에
게는 절실할 겁니다. 다만 사회사업가가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존 연명이 아니라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산다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게 하면 좋겠습니다.

2) 시설에 살다 사망하면, 사고로 사망하면, 시설에 책임을 묻고 배상
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돌보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시설 ‘입소’를 안내하거나
상당하고 그런 취지로 계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얼마쯤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게 돕겠다고, 그렇게 시설 ‘입주’를 안내하거나 상당하고 그런 원칙에
합의하여 입주 계약을 해도 그럴까요?

3) 김하인 소설 ‘국화꽃 향기’의 주인공 미주는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죽어 가면서도 끝까지 품위와 자존심과 관계와 사랑을 지켜 내려 합니
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살고 싶다고, 사람이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딱딱한 의료 조치만 받는 곳. 오직 병에 찌들려 몸만
내맡기고 있을 뿐, 웃음도 삶도 없는 곳.

미주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았
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살고 싶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삶의 주연에
서 조연으로 떨어지는 것, 능동적인 의지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 그것은 정말로 참기 힘든,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고 ‘사람’이게 돕고 싶습니다. 2005. 5. 3

4)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은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 중략 -

T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러나 매일 기능훈련은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왕성한 훈련의욕을 생활의욕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꽃놀이, 1박 여행, 음주 등을 시작했다. 그러자 훈련으로 고통스러웠던 얼굴 표정이 생기 있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손발이 마비되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신체기능도 좋아졌다.”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홈, 2005년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에서 일본과 유럽의 케어가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복지사업 대상자로 연명시킨 겁니다.

유럽은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거들어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렇게 ‘생활’하시게 도왔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시게 한 겁니다.

이 글을 사회사업에 그대로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사업으로 치료 교육 보호하려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도우려 합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 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대상자를 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과 사람살이의 주체로 세워 가는 곳입니다.

보호 대상자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에 맞게 ‘생활’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Surviving is not relevant. Living is. We want to live.”

출처 : [Automata](#)

Even a robot says it wants to live,

so how can we settle for offering our human clients nothing more than care or protection that merely keeps them alive?

12. 후원 봉사

1) 후원 봉사는 입주자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불쌍하거나 무능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후원 금품을 전달하는 사진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널리 있다면 그 시설과 시설 입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그런 인상의 입주자가 그렇게 보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2) 후원 봉사 많이 받다 보면, 인간관계가 대상자로서의 관계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렵고 사람 구실은 ‘불쌍한 사람 노릇’에 그치기 쉽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와 대등한 관계로 평범하거나 더 나은 구실을 하기 어렵고 하려 들지도 않을 공산이 큼니다. 오히려 자존심 염치 체면 핑개치고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들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도 시설 입주자를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 요구 지원하기는커녕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들지 모릅니다.

3) 후원 봉사라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탁하거나 받는다면 이렇게 해 봅니다.

① 입주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개인별 또는 호별 후원 봉사로 분산합니다. 되도록 입주자가 찾아 부탁하거나 입주자가 살펴 받게 합니다. 대신하여 부탁하거나 받으려면 입주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에게 합니다.

② 기관이나 직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기관이 부탁하거나 받되 입주자에게 부작용이 없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되도록 용처와 목표치를 특정하여 모금 모집합니다.

13. 봉사자 관련 주의 사항

- 1)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위해 입주자를 연결해 줌은 온당치 않습니다. 입주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봉사자를 배치하는 처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 2) 흔히 단체 봉사자, 특히 기업 단체 봉사자를 선대합니다. 후원까지 달려 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봉사 대상으로 대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3) 봉사자가 프로그램 한다거나 음식 대접한다고 입주자를 모이게 하는 일도 좋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단체로 오더라도 입주자 개인이나 가구에 흠어져 돕게 함이 좋습니다.
- 4) 공유 시설에 대한 봉사라고 다 사회사업가 임의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 5) 봉사자 대응하는 일이 입주자나 직원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거와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14.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생활보다 프로그램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준비 진행하고, 평가하고, 보고서 쓰느라 바빠 보입니다. 노인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더러는 전문적이라는 프로그램일수록 평범한 생활에서 멀고 자주성에서 먼 것 같습니다.

생존 연명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산림과 강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원에서 보호받으며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되는 동물 같다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당신이 살아오신 환경, 당신의 물건, 가족 친지 이웃 같은 당신의 인간 관계, 당신의 삶을 살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 생활에 가깝게, 여느 노인의 생활에 가깝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댁에 사실 때와 너무 다르지 않게, 얼마쯤 다르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삶이 되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프로그램보다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

노인요양시설 사회사업을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원문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15. 기저귀

1) 기저귀 차는 분의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되도록 기저귀를 쓰지 않고도 용변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한 장애 노인이나 치매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초보 케어 담당자들은 차츰 기저귀를 벗기고 침상에서 탈출시켰다. 기저귀 떼기는 안정을 강요하는 케어를 대신한 새로운 케어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케어 방법을 모아서 만든 것이 1988년의 기저귀 떼기 학회이다.”

『환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그린홈, 2005년

위 책 저자가 기저귀 떼기를 시도한 곳은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 ‘치매 노인이나 장애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를 뗄 수 있었던 건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 주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설의 노인들보다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 저자는 유럽의 노인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몸져누운 노인이 없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손님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방이 따로 있고 거기에 몸져누운 노인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1985년에 아사히신문 논설에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국가에는 ‘몸져누운 노인’이라는 낱말이 없다. 일본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들도 그곳에선 휠체어에 타거나 보행기를 이용해 걷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일본 노인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어떤 조작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쪽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구석구석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 노인들은 치매 중풍 증상이 중하여 기저귀를 채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기저귀 떼기 학회 회원들이 도운 노인들의 상태는 경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2) 어떤 분은 얼마쯤 기저귀를 차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밤에 화장실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넘어져 다칠까 봐 잠을 잘 못 자던 며느리. “어머니, 밤에만 기저귀 차실래요?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저귀는 수면제예요.”

우선은 내가 차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이 기저귀를 차게 해 드렸다. 피부에 닿는 촉감과 배뇨 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게 됐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기저귀의 효과를 여쭙보았다. 시어머니는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신경 쓰지 않고 폭 주무신 것 같았다. 나도 폭 잤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90~92쪽, 하나리 사치코 지음, 최태자·심명숙 옮김, 2010년 도서출판 창해

사례관리 사회사업

1. 사례관리 사업의 배경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조차 잘 모르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에는,

1)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 자원은 대개 스스로 찾아 활용했습니다. 둘레 사람이 알아서 제공 또는 주선했어 주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복지기관이나 정부 쪽 자원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상당 기간 집중하여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달라져서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례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치적 배경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를 만날 때면 전문성이니 고유 영역이니 하며 무언가를 내세우곤 하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 특히 지자체는, 보조금의 가성비가 낮다거나 관의 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민간 자원까지 활용하여 관의 치적으로 삼기 좋으니 챙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용어

1) 사례관리 당사자와 사례관리 지원자

① 사례를 관리하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례관리 당사자’라고 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상자라면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나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관리하게 돕는 사람입니다. 사례관리자라고 하기보다 사례관리 지원자나 사례관리 사업 담당자나 사례관리 사회사업가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2) 관리 대상 사례 곧 ‘사례관리’라는 용어 속의 사례가 사람일까요? 사례 선정이라는 게, 사람을 선정한다는 말일까요? 사례관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말일까요?

사람을 가리켜 ‘몇 사례’, ‘적정 사례 수’, ‘이런 사례’라고 함은 민망합니다. 몇 명, 적정 인원, 이런 사람이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3) 당사자에게 쓰기 꺼림직한 표현의 대안을 궁리해 봅니다.

① 사례? 당사자의 어떤 일 곧 당사자의 어떤 복지 또는 이런저런 복지들을 이루는 일, 그 일을 특정하여 말하면 어떨까요?

②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 서비스? 그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일, 전담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③ 사례회의? 그 일에 관계가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회의라고 하면 어떨까요?

④ 사례관리자? 그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사람, 전담 지원자, 전담 직원, 담당 복지사 따위로 칭하면 어떨까요?

3. 사례회의

1)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와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사례회의도 당사자의 일입니다. 당사자가 자기의 어떤 사례에 대해 여러 관계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 없이,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사례회의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사자의 일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의논하는지, 왜 그 사람과 의논하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당사자가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 없이 하면 헛수고가 되기도 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회의 결과를 당사자가 동의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항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2) 사례회의?

보통은 그냥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도우면 되는데…

필요하면 여럿이 모여 의논할 수는 있겠지만…

여느 사람은 여럿이 모여 의논하더라도 사례회의라고 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인 일에 사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니 무슨 큰일 난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례회의의 실적으로 꾸며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사례회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대상자 선정 기준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조차 잘 모르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제만 보고 선정하면 심중팔구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온 문제, 오래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가만 애매히 부담감 무력감에 시달릴 게 뻔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클 겁니다.

그래도 돕기로 한다면,

한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 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돕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나고 이해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감사 받는 경험이 쌓여, 살아갈 만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고, 더러는 이야기 들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5. 대상자 선정 조사

1) 이용자 또는 구성원끼리 서로 잘 아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면 어찌될까요?

이제 서로 어떤 낯으로 대하며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당사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어찌되며 둘레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자기를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2)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물어도 될까요?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될까요?

사회사업가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와 하는 일을 당사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좋을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해 봅니다.

3) 기관의 기존 대상자라면, 뭘 또 조사해야 할까요? 전에 조사했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묻지 않아도 알 만한데,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특별히 더 조사해야 할까요?

부득이 다시 더 조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데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4)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일상생활 유지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직업 문제, 생활환경 문제...

이렇게 온갖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듯 속속들이 파헤치는 질문, 도와주려고 묻는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것도 문제인가, 난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이런 것까지 캐묻지? 다 해결해 주려고? 써먹지도 않을 걸 왜 묻는 거야?... 가슴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무례를 경계합니다.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꼭 없애야만 하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문제만 없어지고 부작용은 없을까, 신중히 헤아려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처치 역량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2011.

5) 뭘 원하느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뭘 해 줄 수 있는데?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뺏어야지, 사람 봐 가면서 말해야지, 원하는 걸 묻는다고 진짜 원하는 걸 다 털어놓는단 말입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나 다 토로한단 말입니까?

눈치 없다, 자존심도 없다, 비굴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6) 개인사나 가족사, 어디까지 털어놓지? 뒤탈 없을까? 비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록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좋은 일로 묻는 것도 아닌데, 묻는 대로 있는 대로 외인에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다니 얼마나 구차합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사업가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7) 지금 물을 만한 것만 묻고 차차 보완해 갑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헤아려서 물을 만한 때에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라고 다 써넣을 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 기록에 둘레 사람이 악역을 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이야기라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써도 될지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신중히 헤아려 봅니다.

6. 대상자 소개

1) 도와주겠다며 사람을 추천 소개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천 소개 선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2) 제삼자를 통해 대상자를 의뢰 추천 소개받을 때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알려 주더라도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뢰 추천 소개한 사람에게 사회사업가의 이름 소속 직책 전화번호와 하는 일을 알려 주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괜찮은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게 합니다.

3) 둘레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나 문제 현상을 복지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때, 곧장 그 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될까요?

그 어떤 사람이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라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치안센터 학원 학교 또는 유관 복지기관에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사안 상황 나름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7.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

1) 사례관리 사례는 사례를 관리한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한 일이거나, 사례관리자를 자처하는 사회사업가가 한 일입니다.

2)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는 사례를 관리해 주었거나 관리하게 도운 사례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회사업가가 한 일입니다.

3)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 사례는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일까요?

일시적 노력이나 한두 가지 자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면?

기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도왔다면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라고 할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례라고 할까요?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 사회사업가가 직접 나서서 자원 노릇 했다면,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례관리 사업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8. 사례관리 사업의 한계

직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면서 사례관리 사업까지 한다면 담당 서비스 또는 그 기관의 자원이나 잘 활용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 작은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대개 본 사업만으로도 벅칩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면서 본 사업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사례관리 사업까지 직접 하려 들지 말고 본 사업이나 잘할 일입니다.

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더러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도와줄 수 있으나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책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해야 한다면 그만큼 본 사업을 줄이거나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주자 개별 지원이 곧 사례관리 사업에 상당합니다.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돕는 겁니다. 오히려 시설의 자원을 피하고 지역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자원을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주간센터도 시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복지관이라도 정체성과 역량에 맞게 얼마쯤 한계를 둡니다.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를 한정하는 겁니다.

특히 전문적 상담 치료나 정부의 공적 지원이 ‘우선 또는 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추천하고 그쪽 사례관리 사업에 협력하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조사

1. 보고서의 정합성

더러 서론에서는 대단한 사실을 알아낼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문에서는 그럴듯한 조사 방법과 데이터 처리 분석 기법을 보여 주는데...

조사 목적을 이루었는지, 조사 분석한 정보를 결론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정보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정도 결론을 위해 이런 조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조사 분석한 정보가 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 조사하지 않아도 알 만한 이야기, 문헌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느니만 못한 이야기, 사회사업가로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결론은 민망합니다.

2. 욕구 조사

1) 사회사업가 쪽에서는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물을 만한 것이나 묻고 당사자 쪽에서도 묻는 사람 봐 가면서 적당히 대답하는데, 당사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나 절실한 욕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2) 문제나 욕구를 물으니 해결해 줄 줄 알고 잘 대답해 주던 사람들이 차츰 사회사업 조사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시큰둥해집니다. 문제나 욕구를 묻는 조사에는 성의 없이 대충 응답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때 성실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나 욕구, 조사까지 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조사 나름이겠지만, 사회사업하는 데 문제나 욕구 조사가 그렇게 필요한지, 기회비용보다 큰 효용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4) 지금 필요한 강점과 자원, 실무에 바로 활용할 정보를 위주로 조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강점이나 자원이 있는지, 이런저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정보를 어떻게 알려 드리면 좋겠는지 묻는 겁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통게시판 [5682](#)번 글 '농촌 노인 욕구 조사 대 강점 조사'
시골사회사업 게시판 [1238](#)번 글 '농촌 마을 강점 중심 욕구조사'

5) 욕구를 묻는다면

①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대응할 만한 것들을 예시합니다.

②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예시합니다.

③ 선택하는 욕구가 실제 이용·참여로 이어지게, 욕구의 선택지에 예컨대 시간 장소 비용 교통편 방법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제시합니다.

3. 욕구 조사의 딜레마

1) 가장 심각한 문제나 절실한 욕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택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노후에도 할 일이 있고 건강하고 소유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욕구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욕구도 물을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가고 결혼 잘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싶다면? 시험 보지 않고 싶다면? 경쟁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부모형제 자녀·손자 모두 평안히 잘 살기 바란다면?

2)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문제나 욕구를 물어서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3) 원하는 대로 해 줄까요?

① 어느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장애인끼리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통합은 장애인 정서를 모르는 학자의 주장이거나 경증 지체장애인들의 배부른 소리’라고도 한답니다.

‘장애인끼리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계속 따로 살게 해야 할까요?

설문의 내용, 문장, 낱말, 토씨, 순서가 어떠한가? 질문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장애인끼리 있는 편이 좋다’면 → ‘앞으로도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이를 보면 설문자의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② 모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업소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업소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몸으로 일반 업소에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느냐? 복지관에서 해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용 서비스를 해야 할까요?

③ 모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은 2003년 현재 아홉 군데 그룹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룹홈에 나가 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룹 홈 거주자 중에도 시설 안에서 살 때가 좋았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시설 안에서 살게 해야 할까요?

※ 이 표현은 이제 거슬립니다. 시설 안에 살든 밖에 살든,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④ 중증 뇌병변이 있는 아동의 식사 지원은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숟가락 사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유동식만 먹으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여 언제까지나 그렇게 먹여야 할까요?

그렇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 욕구대로 해주거나 사회사업가 생각대로 하거나, 둘 다 극단적입니다. 당사자 욕구와 사회사업가 판단 사이에서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조사 사회사업 사례

1) 사례 1

대학생 20명이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재활원 둘레 1024 가정을 방문하여 336가정에서 면접했거나 응답지를 회수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예시하며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그저 동네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 이런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연락처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64.4%가 참여하고 싶다 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8%나 됩니다. 잘 몰라서, 너무 큰 시설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면접 조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로써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의와 잠재력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인정이 오가는 지역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실무에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의 연락처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래전에 대학생들이 한 일이지만 지금 사회사업가의 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682](#)번 '강점 조사'

2) 사례 2

2001년 설 명절 어느 장애인시설. 그저 여느 사람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집에서 세배도 하고 옷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재활원 홍보물과 설 명절 계획서를 들고 동네 5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입주자 한두 명씩 찾아가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여느 가정의 설 풍경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입니다. 102호 철수 씨를 초대해 주십시오. 102호 철수 씨네 집에 놀러 오십시오.”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령도 생겼습니다.

다섯 가정이 호응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라고. 다섯 가정. 오백 가운데 다섯이니 많은 건 아니지요. 이런 시도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쪽에 서도 갈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니 인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선 후에는 설 인사법과 식사예절을 익히게 해야 했고, 복장도 갖추고 선물도 준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가정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입주자 다섯 분이 다섯 가정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설을 쇠었습니다. 집에서 세배도 하고 옷놀이도 했습니다.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495가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이라 선뜻 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명절이라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명절 준비로 바빠서 대답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들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은 헛수고였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려는 분이 많았습니다.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없었더라도, 지역사회에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 자체가 분명 사람들의 복지 본성과 인식을 깨워 지역사회 복지 바탕을 일구어 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소수를 상대하는 일이라 열에 한둘만 호응해도 넘칩니다.

십중팔구에 쏟은 노력이 쓸데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호응하지 않은 사람도 다음에 만날 때는 이야기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 도와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어떻게든 도와주려 할지 모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호응하지 않거나 못하는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처지 형편을 헤아려 존중하고 알아줍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다듬습니다. 다음에 다른 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기로 합니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되도록 고향집에, 가족 친척에게, 다녀오게 돕겠습니다. 입주자 개인이나 호별로 설을 어떻게 지낼지 계획하고 준비하게 돕겠습니다.

사회사업 기획

1. 기획서 다듬기

OO복지재단 2007년도 우수사례집 (사업명 : “할머니는 우리 엄마” - 자조모임을 통한 조부모·손자녀 세대의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1) 목적

본 프로그램은 OO구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자 가정의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상호지지와 개인 양육 능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상실된 역할과 기능을 보완, Empowerment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 방법 목표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건 빼고 목적만 남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

목적 2 : 가족 기능이 강화된다.

② 타동사형과 자동사형이 섞여 있습니다. 통일해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 개발

목적 2 : 가족 기능 강화

③ 두 목적의 급이 다릅니다. ‘잠재능력 개발’은 ‘기능 강화’를 위한 수단 즉, 하위 목표나 계획에 해당합니다. 하나를 뺍시다.

목적 : 가족 기능 강화

목적에서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라고 밝혔듯이 실제 이 사업에는 조모 대상 계획만 있고 손자녀 대상 계획이 없습니다. ‘가족 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고 일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계획을 추가하거나 목적을 줄여야 하는데, 목적을 줄여 봅시다.

목적 : 조모의 손자녀 양육 기능 강화

2) 목표

① 목표 1 :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조부모의 자아 효능감을 향상한다.

a. 계획인 ‘~을 통해’는 빼고 목표만 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표 1-1 : 조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감

목표 1-2 :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b. 여기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목표와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 사이에 위계를 따져 봅시다. 어느 것이 위에 있어야 합니까?

② 목표 2 :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a. 하나씩 나누어 쓰되 명사형으로 통일해 봅시다.

목표 2-1 : 조모의 긍정적 역할 강화

목표 2-2 : 조모 개인의 역량 강화

목표 2-3 : 가정의? 조모의? 생활 만족도 제고

b. 세 가지 목표가 동급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 역할 강화 → 생활 만족도 제고, 이런 순서로 위계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여기 ‘생활 만족도 제고’ 목표는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보다 상급입니다.

목표 1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2를 달성해야 목표 1이 이루어질 텐데, 같은 단계에 나열할 수 있습니까?

③ 목표 3 :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자원망을 활용한다.

목표 1이나 2와는 급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라기보다 수단에 가깝습니다. 원칙·방침 편이나 계획 편에 넣는 편이 좋겠습니다.

2. 기획서 예시

복지 서비스 정보화 사업

1. 필요성

- 1) 복지 서비스 정보화 수요
- 2) 복지 서비스 정보화 현황
- 3) 기존 사업의 한계

2. 2010년 미래상

3. 4. 6. 목적, 목표, 사업 내용

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목표	복지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생산·공급 기반 강화	시민 복지 활동 활성화
계책	- 복지종합상담시스템 구축 - 복지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 자원봉사와 후원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복지 동아리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반 시민

5. 원칙·방침 : 기존 사업 한계 극복 방안, 실효성 확보 방안

7. 관리 운영 방안 :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원문 : <http://welfare.or.kr> → 복지경영 → [‘복지정보화’](#)

2001년 2월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쓰는 법에 맞게 썼는지, 특히 필요성 목적 목표 계책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 표에 요약한 목적 목표 계책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3. 공모사업과 지원신청

1) 지원신청

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당사자가 있는 사업이라면, 공모사업 파악 및 검토부터 준비, 기획서 작성, 신청까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외부 지원을 신청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② 당사자의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게 기술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만, 사회사업가가 임의로 쓰더라도 당사자를 비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③ 되도록 적극적 사업으로써 합니다. 지역사회가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2) 지원 조건

①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를 기획 신청의 주체로 세웠는가?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했는가?

② 기획 신청 과정에 당사자가 없더라도 실행할 때는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게 계획했는가?

지원하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살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3) 공모사업의 폐해

- ① 지나치게 문제 중심 사업으로 몰아갑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술하게 요구하니 당사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 ② 외부 지원은, 지원 나뉘고 쓰기 나뉘이지만,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개발 유치 활용하면 부작용이 덜할 수 있으나 사회사업가가 그러면 위험합니다.
- ③ 일회성 단기성 사업으로 사회사업 지속성 안정성을 해치고, 매양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여 사회사업 발전을 왜곡 방해하기도 합니다.
- ④ 사회사업가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심신의 기운과 시간을 지나치게 소모합니다. 관련 업무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모사업 정보 파악,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금 받고 쓰고 뒤처리하기, 평가 대비 서류 작업 따위로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하는 데 드는 현장의 총비용보다 지원금 총액이 클까요? 선정되지 않으면 허비한 시간을 누가 어떻게 배상 벌충할까요?

4) 지원신청 꼭 해야 할까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이 움직이는데, 그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허구한 날 지원신청과 사업 포장에 매달리는 모습이 민망합니다.

어디서 뭐 주는 거 없나 해매고, 찾으려면 받을 만한가? 신청해 볼까? 하느라 시간 잡아먹고, 지원신청서 쓴다고 시간 잡아먹고, 지원 금품 수령한다거나 교육받는다고 시간 잡아먹고, 증빙자료 챙긴다고 시간 잡아먹고, 평가 대비 감사 대비 사업 포장하느라 시간 잡아먹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찾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도박장인지 포장업소인지, 지원 금품에 베풀하느라 보고서 꾸미느라 컴퓨터에 제사 모시듯 하고 앉아 있으니 대화는 고사하고 인사하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동냥하려다가 추수 못 보는 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사업 기록

1. 효용

이런저런 행사 서비스 프로그램 후원 봉사를 했다고 복지사업 실적이 나 늘어놓는 기록, 수치 중심 기록, 개조식 기록, 사무적 기록...

감동은커녕 별 실익도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은 빛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당사자나 지역사회는 구차하거나 무능 무정 무색해 보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생각과 그 일의 원리 방법 의미를 밝히지 않으니 다른 사회사업가에게 별 유익이 되지도 못합니다.

2. 지식 경험 생각

공부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다 보면 지식 경험 생각이 쌓입니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1) 무슨 사업을 하든지 먼저 관련 문헌을 두루 찾아봅니다. 유용한 내용을 뽑아 분류 저장합니다. 꾸준히 보태고 다듬어 갑니다.

2) 관련 현장을 두루 견학하여 경험자에게 자세히 묻고 잘 듣고 자료를 구합니다. 분류 저장합니다. 꾸준히 보태고 다듬어 갑니다.

3) 그 가운데 좋은 걸 취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스스로 연구하고 조합 가공 개선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꾸준히 발전시켜 갑니다.

4) 실천 과정과 성과와 의미를 기록합니다. 꾸준히 다듬어 갑니다. 기록은 그때그때 공유합니다. 동료들과 나누며 절차탁마합니다.

이와 같이 맡은 일마다 관련 문헌을 살피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성찰하며 그 지식 경험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이것이 배운 사람의 사회사업이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한 사람의 책무입니다.

사회사업 평가

1. 수치 평가

1)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목표 수치의 근거를 밝히기 어렵고 달성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 이현령비현령 꼴 되기 십상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면 잘했다고 할까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고 할까요? 괜히 초과 달성해서 평지풍파 일으킨다고 할까요?

2) 사전 사후 비교 평가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만한 시간 예산 인력 들여서 이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았냐고 할까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할까요?

이 사업 덕에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을까요?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요? 같은 시간 예산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방식이든 대개 사후에 좋아졌다고 하니,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별 뜻이 없습니다.

3) 당사자에 대한 수치 평가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사회사업가가 기획 설계 조사 분석하는 수치 평가가 특히 꺼림칙합니다. 민망합니다.

평가의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까지 당사자가 함께하게 하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

2. 교육 평가

교육을 마치고 하는 평가도 실리 평가로 합니다.

교육이나 강사를 평가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배움을 갈무리하고 나눕니다.

1) 두어 명씩 짝지어 또는 4~7명씩 모여서 나눕니다.

2) 배운 것을 한두 가지 고르고, 동료들과 나눌 때 실마리로 삼을 만한 낱말을 한두 개씩 씁니다. 시간이 있으면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3) 배운 것을 설명하거나 해당 내용을 찾아 낭독합니다. 그 대목에서 일어난 생각, 관련 있는 경험이나 지식, 성찰과 적용 따위를 나눕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도록 내실 있게 나눕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과 다른 것 같은 자기 배움을 나누는 겁니다.

동료가 말할 때 잘 듣고 잘 반응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움이 뚜렷해지거나 깊어지고 생각과 표현이 다듬어지곤 합니다.

3. 사업별 평가 워크숍

사업을 세분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담당자의 발제

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잘 발휘되었거나 발견한 자기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기관과 동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까지 나누면 더 좋습니다.

②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2) 동료 슈퍼비전

① 발제를 듣고 알아주거나 세워 줄 점, 칭찬 감사할 점을 찾아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경험 지식 정보, 발전케 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②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낱말 한두 개로 적어 봅니다. 그 낱말을 실마리로 삼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점이 좋아 보인다, 이걸 이런 의미가 있다, 이 강점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③ 사람이 많으면 먼저 조별로 나누는 후에 전체 앞에서 발표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한 번,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 봅니다.